

碩 士 學 位 論 文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沈黙』 研究

- 母性的 그리스도像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秦 恩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 語 教 育 專 攻

高 景 順

2003年 8月

#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沈黙』 研究

- 母性的 그리스도像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秦 恩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5月 日



高景順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年 7月 日

審查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국문초록>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沈黙』 研究  
- 母性的 그리스도像을 中心으로 -

高 景 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秦 恩 淑

엔도 슈사쿠(遠藤周作)는 종교적인 주제의 평론과 작품을 통하여 형이상학적 세계를 끊임 없이 모색한 戰後 일본의 가톨릭 작가이다. 일본인이며 또한 가톨릭 작가라는 실존의 문제를 추구하여 온 그는 초기평론에서 제기한 일본인과 그리스도교, 일신론과 범신론, 신의 문제와 같은 명제를 『白い人』(1955), 『黄色い人』(1955), 『海と毒菜』(1957) 등의 소설로 심화 전개, 이윽고 『沈黙』(1966)으로 結晶되었다.

엔도는 프랑스 유학을 계기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영향으로 받은 가톨릭 세례를 자신의 몸에 안 맞는 양복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험령한 양복을 몸에 맞는 일본 옷으로 고치는 작업이 곧 그의 평생의 문학의 테마가 된다. 즉 서구의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범신론적 정신 풍토를 지닌 일본에 알맞게 수용하는 작업이 바로 일본 가톨릭 작가로서의 엔도의 출발점이었다. 이와 같은 주제의식은 2년 반에 걸친 투병생활 후에 쓰여진 『沈黙』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沈黙』은 초기평론과 『白い人』 이래의 작품세계를 이으면서도 제재·주제·기조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엔도 문학 세계의 분수령을 이루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양의 부성적 그리스도가 범신론적 정신 풍토를 지닌 일본에 알맞게 수용되기 위해서 모성적 그리스도로 변용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여 『沈黙』의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

『沈黙』은 주인공 로드리고의 그리스도상이 그가 서구의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쳐 왔던 강하고 엄격한 부성적 그리스도에서 가톨릭 박해하의 범신론적 정신풍토를 갖는 일본이라는 토양 안에서 약함 때문에 고통 받는 인간과 함께 하는 모성적 그리스도로 변용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자의 전형인 기치지로는 로드리고의 주위를 끊임없이 감돌면서

---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시종일관 유다로서 자극한다. 타고난 약한 천성 때문에 배교와 신앙회복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비겁하고 교활한 기치지로는 일관된 삶을 살아온 로드리고에게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유다, 기치지로를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로드리고에게 주어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로드리고는 일본의 신자들을 위하여 후미에를 밟고 배교자로 추락하면서 비로소 예수가 유다에게 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는 후미에 앞에서 어서 밟으라는 그리스도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배교자 유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와 같은 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게 된다. 여기서 유다로 상징되는 약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결국 엔도가 『沈黙』 속에서 제시한 약자상은 일본인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서구의 그리스도상을 작품 속에서 약자를 공감하고 포용하는 모성적 그리스도상으로 발전시키는 모티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로드리고의 의식 변화는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의 변화를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 로드리고는 십여 차례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는데 로드리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변화에 따라 그리스도의 얼굴은 점차 변해간다. 즉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절망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점차 변하여 부정적인 모습에서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작자는 로드리고의 내면적 성찰을 그리스도의 얼굴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상의 변화는 로드리고가 배교를 통하여 이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엄격한 부정적인 그리스도와는 다른 신앙으로 변모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드리고는 일본인들이 겪는 신앙의 갈등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일본의 정신풍토를 이해하게 되고 이 일본이라는 토양에 맞는 神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로드리고를 통하여 엔도가 찾은 神의 모습은 그리스도교의 긴 역사를 갖는 서양의 심판하는 자, 분노하는 자, 즉 부정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에 넘치며 약한 인간과 늘 함께 하는 동반자적인 그리스도, 즉 모성적 그리스도였다. 『沈黙』에서 제시한 모성적 그리스도상이야말로 모든 정신세계에서 보편성을 지닌 그리스도상의 탐구를 위한 기나긴 여정 끝에 도달한 것이었다.

『沈黙』 이후 일본인이 공감할 있는 그리스도상을 찾는 엔도의 기나긴 여정은 계속되어 이윽고 『死海のほとり』(1973), 『イエスの生涯』(1973), 『キリストの誕生』(1978), 『深い河』(1993)와 같은 작품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戦後 일본의 가톨릭 작가로서 종교적 주제의 평론과 작품을 통하여 형이상학적 세계를 끊임없이 모색한 엔도 문학은 일본의 문학풍토에 있어서 귀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목 차

국 문 초 록 .....	i
I. 서 론 .....	1
II. 일본의 정신풍토와 그리스도교 .....	4
1. 그리스도교와의 거리감 .....	4
2. 늙지 일본과 그리스도교의 변용 .....	8
III. 그리스도상의 변화 .....	14
1. 로드리고에 있어서의 약자상 .....	14
2. 로드리고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상의 변화 .....	25
IV. 모성적 그리스도상 .....	36
1. 엔도의 모성상 .....	36
2. 부정적 종교와 모성적 종교 .....	41
V. 결 론 .....	51
참 고 문 헌 .....	53
Abstract .....	57

# I. 서 론

엔도 슈사쿠(遠藤周作:1923~1996. 이하 엔도라 약칭한다)는 일본근대문학사상 제3의 新人<sup>1)</sup>의 한사람으로 그리스도교의 ‘神’과 ‘사랑’이란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한 일본의 대표적인 가톨릭 작가이다.

첫 평론 「神々と神と」(1947)로 주목을 받은 엔도는 계속하여 「カトリック作家の問題」(1947), 「堀辰雄論覚書」(1948)를 발표하면서 비평가로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약2년 6개월간(1950년 6월~1953년 1월)의 프랑스 유학을 거치면서 프랑소와 모리악<sup>2)</sup>의 문학에 깊이 공감하여 종교와 문학의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특히 일본의 문화풍토와 그리스도교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의 정신풍토와의 비교연구에 관심을 갖고 일본적 범신론과 서구적 일신론의 대립양상이라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양자의 의미를 묻고자 하였다. 이 문제가 단순히 비교문화론적인 흥미를 넘어서 실존적인 의미를 갖는 절실한 문제의식이 되었던 것은 일본인이며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엔도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자신의 실존과 관련하는 심각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엔도는 유학 후에 첫 소설 「アデンまで」(1954)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그 다음 해에 『白い人』(1955)가 제33회 芥川賞을 수상하면서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부상하게 된다. 잇따른 화제작 『黄色い人』(1955), 『海と毒薬』(1957)에서도 신의 문제에 대한 서구와 일본의 대비, 죄의

---

1) 1945년 이후에 문단에 등장한 일군의 신인작가들을 개괄적으로 부르는 문단용어이다. 이들은 패전 직후의 혼란이 끝나고 안정기로 향하는 시기에 전후파의 사상성과 정치성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체험이나 감각을 고집하여, 사소설과 비슷한 방법을 취한 작가들이다. 대표적인 작가에는 安岡章太郎, 吉行淳之介, 小島信夫, 庄野潤三, 小沼丹, 曾野綾子, 三浦朱門, 遠藤周作등이 있다.

2) Mauriac Francois(1885~1970) : 프랑스의 소설가, 수필가, 시인, 극작가, 언론인이기도 하며, 195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현대 생활의 추악한 현실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프랑스 가톨릭 작가들의 계열에 속한다. 그의 주요 소설들은 끊임없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는 음울하고 준엄한 심리 드라마이다. 그의 모든 작품의 주제는 죄악·은총·구원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는 종교적 영혼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테레즈 데케루』(1927), 『사랑의 사막』(1949), 『독사의 집』(1932)등이 있다. 엔도는 모리악에 대하여 자신의 문학과 그리스도교의 관계에 “길을 열어 주신 선도자”라고 「モリヤックと私」에서 밝히고 있다.

식,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의혹이란 주제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발전되어 『留学』(1965)을 거쳐 『沈黙』(1966)으로 結晶되어 간다.

『沈黙』은 1966년에 발표되어 제2회 谷崎潤一郎賞을 수상한 장편소설로 작가 자신의 신앙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초기 평론에서 제기하여 초기 소설을 통하여 심화 전개 시켰던 일본인과 그리스도교, 혹은 일신론과 범신론, 神의 문제와 같은 명제들이 『沈黙』에서 일단락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엔도의 문학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沈黙』은 일본의 기리시탄(切支丹)<sup>3)</sup> 박해시대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발단은 교구장이라는 가톨릭교회 최고의 직위에 있으면서 신자들과 성직자들을 통솔하던 페레이라신부가 일본에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스승의 굴복을 믿을 수 없었던 포르투갈의 젊은 신부 로드리고가 동료신부와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일본으로 잠입하면서 전개된다. 일본에 잠입한 로드리고신부를 중심으로 이미 배교한 페레이라신부와 약자의 대변자격인 기치지로 등의 삶을 통하여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뇌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엔도는 이 작품 안에서 그동안 그가 추구하여 온 범신론적 정신풍토를 갖고 있는 일본이라는 토양 안에서 그가 늘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하면 몸에 맞는 ‘일본 옷’으로 고쳐 입을까 하는 명제에 대한 해결을 보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약자의 조형을 통하여 참된 신의 모습과 그 신의 사랑을 추구한 부분이 선명한 특색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이와 같이 『沈黙』은 초기평론과 『白い人』, 『黄色い人』이래의 작품세계를 이으면서도 제재·주제·기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으로 엔도 문학 세계의 분수령을 이루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문제를 내장한 이 작품이 발표되자 문단 안팎으로 많은 연구와 평이

3) 切支丹(キリシタン) : 포르투갈어 christão이 일본어로 그대로 이입된 말로 영어의 christian과 같은 뜻이다. 원래 그리스도교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메이지(明治) 이전의 가톨릭교, 혹은 가톨릭교 신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기리시탄은 오랜 세월 탄압을 받아서 邪教라는 오명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 세계사에 연관된 문화사적 의의가 규명되면서 사교라는 오명의 부당함이 지적되고 있다.

쏟아졌다. 이러한 『沈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의 토착화’<sup>4)</sup>·‘약자’<sup>5)</sup>·‘모성적 존재와 모성적 그리스도관’<sup>6)</sup>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배교 결정을 앞 둔 로드리고가 자신을 밟으라는 그리스도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획득하는 점, 그리고 『沈黙』이후의 작품들의 주제가 ‘모성적 그리스도상’의 확립에 있는 것을 보면<sup>7)</sup> 『沈黙』은 주인공 로드리고의 배교에 의한 신앙(=모성적 그리스도)의 획득이라는 한 점을 향하여 모든 것이 과부족 없이 배치되고 있는 성격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토착화와 약자의 구원이라는 문제는 『沈黙』의 부차적인 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는 서양의 ‘부성적 그리스도상’이 범신론적 정신 풍토를 지닌 일본에 알맞게 수용되기 위해서 ‘모성적 그리스도상’으로 변용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여 『沈黙』의 주제를 분명히 밝히는데 있다.

본 논문의 인용은 新潮社간행 『遠藤周作文学全集』全15卷(1999~2000)을 텍스트로 사용하였으며 김 윤성역 『침묵』(마오로딸, 1999)을 참고로 하여 본인의 번역을 주로 하였다.

- 
- 4) 대표적으로 フランシス・マシ의 「遠藤周作の泥沼日本」(『日文学』1969.2), 上総英郎의 「共感と挫折」(『三田文学』1967.4), 江藤 淳의 「成熟と喪失」(『群像日本の作家22遠藤周作』, 小学館 1991)등의 일련의 논고가 있다.
  - 5) 그 대표적인 논자인 武田友寿(「遠藤周作における超越性の契機」, 『日文学』1973.2)는 엔도 문학의 특징은 약자의 복권이며 그러한 의도에서 본다면 『沈黙』의 주제는 약자인 기치지로의 복위에 있다고 논하고 있다.
  - 6) 대표적으로는 佐藤正泰의 「遠藤周作における母のイメージ」(『日文学』1973.2), 佐古純一郎의 「遠藤周作とカトリズム」(『解釈と鑑賞』1975.6), 笠井秋府의 「『沈黙』-父の宗教から母の宗教への転換」(『遠藤周作論』, 双文社出版, 1987)등의 논고가 있다.
  - 7) 「父の宗教・母の宗教」(1967), 「母なるもの」(1967~1969), 「イエスの生涯」(1968~1973), 「死海のほとり」(1970~1973)등의 일련의 작품을 말한다.



## II. 일본의 정신풍토와 그리스도교

### 1. 그리스도교와의 거리감

엔도는 대학시절의 첫 평론 「神々と神と」 이래 일본의 범신론적 풍토와 서구의 일신교의 세계와의 거리감이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추구한 작가이다.

‘우리가 가톨릭 문학을 읽을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이질적인 작품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리감을 결코 경원하지 않는 것.’ 이 거리감이란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신론적 피가 끊임없이 가톨릭 문학의 일신적인 피에 반항하여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我々がカトリック文学を読む時、一番大切なことの一つは、これら異質の作品がぼく等に与えてくる距離感を決して敬遠しないこと」。この距離感とは、ぼく等が本能的にもっている汎神的血液をたえずカトリック文学の一神的血液に反抗させ、たたかわせると言う意味なのであります。8)

첫 평론에서 일본의 범신론적 풍토에 대하여 언급한 이래 엔도의 작품에는 서구의 그리스도교 정신과 일본의 감수성 사이에 놓여진 틈(裂隙)을 자각하여 일본의 가톨릭 작가로서 고뇌하였던 그의 정신적 궤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엔도는 灘中学校 1학년생인 1935년 6월 23일 西宮市에 있는 夙川가톨릭교회에서 형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私の文学」(1967), 「合わない洋服」(1967) 등의 에세이에서 ‘어머니가 입혀준(母から着せられた)’ ‘몸에 맞지 않는 양복(身にあわぬ洋服)’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러테면 나에게 그리스도교는 성장기 때 어머니가 입혀준 양복과 같은 것이었다....(중략)...그러나 청년시절부터 나는 이 양복이 자신의 키에 맞지

8) 遠藤周作, 「神々と神と」, 『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卷, 新潮社, 1999, p.24

않는 것을 괴로워하였다.

いわば基督教は私にとっては成長期と共に母親から着せられた洋服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中略)…しかし青年時代から、私はこの洋服が自分の背丈に合わぬことに苦しみだした。9)

그 후 십년이 지나서 나는 처음으로 이모와 어머니가 입혀준 이 양복을 의식했다. 양복은 내 몸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헐렁하고 어떤 부분은 작았다. 이런 것을 깨닫고 나는 몇 번이나 이 양복을 벗어 던지려고 했다. 우선 그것은 무엇보다도 양복이었고 내 몸에 맞는 일본 옷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 몸과 양복사이에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틈이 있었고 그 틈이 있는 한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だがその後十年たって、私は初めて自分が伯母や母から着せられたこの洋服を意識した。洋服は私の体に一向に合っていなかった。ある部分はダブダブであり、ある部分はチンチクリンだった。そしてそれを知ってから、私はこの洋服をぬごとと幾度も思った。まずそれは何よりも洋服であり、私の体に合う和服ではないように考えられた。私の体とその洋服との間にはどうにもならぬ隙間があり、その隙間がある以上、自分のものとは考えられぬような気がしたからである。10)



엔도에게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입혀 준 양복과 같은 것이기에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헐렁한 양복과 자신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틈, 즉 가톨릭에 대한 거리감을 깨닫고서 몇 번이고 그 양복을 벗어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리스도교라는 양복을 벗어 던지지 않았다.

벗어 던지고 대신 갈아입을 옷이 없었기 때문이며,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가 입혀준 그리스도교가 갖는 힘 때문이었다.

ぬぎ棄てて、代りに着るものを私が持っていなかったためであり、今一つは母にたいする愛情や、母が着せてくれた基督教のもつ力のためである。11)

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교 자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

9) 遠藤周作, 「私の文学」, 『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卷, 新潮社, 1999, p.377

10) 遠藤周作, 「合わない洋服—何のために小説を書くか」, 『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卷, 新潮社, 1999, p.395

11) 遠藤周作, 「私の文学」, p.377

었다. 그리하여 그는 적극적으로 이 험령한 양복을 자신의 몸에 맞는 일본 옷으로 고쳐 입으려고 결심한다. 「合わない洋服」에서

나는 이 양복을 자신에게 맞는 일본 옷으로 고치려고 생각했다.…(중략)  
…그러나 타인에 의해 입혀진 험령한 양복을 자신의 몸에 맞게 하기 위해  
서 일생동안 노력하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중략)…나는 오늘까지 이 험령한 옷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고 작품을 써 왔던 것이다.

私はこの洋服を自分に合わせる和服にしようと思ったのである。…(中略)…しかし他人  
から着せられたダブダブの洋服を自分の体に合うよう生涯、努力することも文学ではない  
かと言う気持になったからである。…(中略)…私は今日まで、ダブダブの服を少しでも自  
分のものにしようと思って書いてきた。12)

자신에게 맞는 일본 옷으로 고치는 작업을 평생 엔도 자신이 문학의 테마  
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구의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자신의 몸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바로 가톨릭 작가로서의 엔도의 출발점이었다.

양복과 자신의 몸 사이에 생긴 틈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서구의 그리스도  
교에 대한 거리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엔도는 에세이 「私とキリスト教」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자신의 신앙문제로 괴로워했던 것 중 하나는 일본인적 감각과 그리  
스도교와의 모순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교의 신앙  
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 가르침이 보편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전통도 문화도 역사도 전혀 없는 바로 일본에서 태어  
났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이 그리스도교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교와는 상반되는 감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청년이 되어야 겨우 깨  
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私が自分の信仰の問題として苦しんだことの一つに日本人的な感覚と基督教との矛  
盾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勿論、日本人ということと基督教の信仰というものは論理的に反す  
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信仰とは人種や国境を超えたものですし、その教えが普遍的なこと

---

12) 遠藤周作, 「合わない洋服—何のために小説を書くか」, pp.395~396

も確かです。けれども、私はほかの国に生れたのではなく、基督教の伝統も文化も歴史も全くなかったこの日本に生れたのでした。私の心の中にはこの基督教に浸されていないもの、むしろ基督教とは相反する感覚が、かくされていたことを、私は青年時代になってやっと気づいたのです。13)

그리스도교적인 전통과 문화도 없는 일본이라는 토양에서 태어난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상반되는 일본인적 감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두 세계의 거리감을 자각하는데서 오는 신앙문제로 늘 괴로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엔도는 그리스도교와 상반되는 일본인적 감각을 ‘신에 대한 무감각(神にたいする無感覚)’ ‘죄에 대한 무감각(罪にたいする無感覚)’ ‘죽음에 대한 무감각(死にたいする無感覚)’이란 말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러한 신에 대한 무관심은 ‘무엇보다도 동양적인 우주관이나 동양적인 범신론에서 오는 것으로 일본인이 오랫동안 일본이라는 토양 속에서 길러진 것(東洋的な宇宙観や東洋的な汎神論から来ているようであり、日本人には長い間、ぬきがたいほど培われてきたもの)’<sup>14)</sup>이어서 일본인의 감각에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논하였다. 그리고 엔도는 이러한 일본인적 감각이 가톨릭 신자인 자신에게조차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神々と神と」에서도 “가톨릭사상은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범신론적인 제신들의 아들로서의 피가 응성거리며 외쳐대고 있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カトリシズムを知れば知るほど僕たちは神々の子としての血液がざわめき叫ぶのを聴かねばならぬのです。)”<sup>15)</sup>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범신론적인 풍토에서 생겨난 일본적인 감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은 요시미쓰 요시히코(吉満義彦)<sup>16)</sup>와 사토 사쿠(佐藤朔)<sup>17)</sup>에게 사사받으면서 작크 마리탱<sup>18)</sup>을 중심으로

13) 遠藤周作, 『私とキリスト教』, 『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巻, 新潮社, 1999, p.304

14) 앞의 글, p.306

15) 遠藤周作, 『神々と神と』, pp.16~17

16) (1904~1945) 鹿児島출신으로, 가톨릭철학자이다. 東京大 윤리학과 졸업, 재학 중에 岩下壯一에게 토미즘을 배웠으며 졸업 후 작크 마리탱의 『スコラ哲学序論』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어서 파리대학에서 마리탱에게 사사 받고 1930년에 귀국, 이후 上智大学과 東京公教神学校에서 철학을 강의하였다. 저서로는 『文学と倫理』(1940) 『哲学者の神』(1947) 『詩と愛と実存』(1940)이 있으며 그 외에 번역을 통하여 스킨라 철학을 일본에 정력적으로 소개했다. 그의 입장은 일본 문화를 재창조하는 원동력으로써

하는 네오·토미즘<sup>19)</sup>과 프랑스 가톨릭문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일본의 범신론적 정신풍토 안에서 배양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양립하지 못하는 일본인의 감각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가는 엔도의 정신사를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와 일본의 범신론적 토양의 거리감을 인식한 엔도는 일본인의 감각에 맞는 그리스도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자신의 문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탐구의 결과가 『沈黙』에서 하나의 달성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 2. 넓지 일본과 그리스도교의 변용

서구의 일신론적 세계와 대비되는 일본의 범신론적 정신 풍토는 ‘우울한 허무에 뒤덮혀 있는(物憂い虚無に覆われている)’<sup>20)</sup> 세계로서 『沈黙』의 중요한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로드리고가 도모기 마을에 잠복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나가사키(長崎)의 관아에서 문초를 받는 장면에서 이노우에 지쿠고노가미(井上築後守)는 일본의 풍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었다.

- 17) (1905~?) 동경출신으로 불문학자이다. 慶応大 불문학과 재학 때부터 잡지 『仏蘭西文学』 등, 기타의 기고가로써 활약하였으며, 콕토 등의 모더니즘 시의 번역·소개에 열심 하였다. 戦後에는 샤르트르, 카뮈의 문학을 일본에 소개하였으며 프랑스 신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는 『ボオドレエル覚書』(1949), 그 외에 번역 작품이 많다.
- 18) Maritain Jacques(1882~1973) :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新토마스주의 철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처음에 H.L.베르그송과 H.드리시 등의 ‘생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1906년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신토마스주의의 형이상학에 귀의한다. 제2차대전 후에 휴머니즘과 민주주의에 관한 저술을 계속 발표하고, 가톨릭의 ‘통합적 휴머니즘’으로써 현대의 위기를 구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베르그송철학』(1913), 『예술과 스킨라철학』(1920) 등이 있다.
- 19) (Neo-Thomism) : 新토마스주의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중반까지 주도적이었던 가톨릭 철학과 신학에서의 운동을 지칭한다. 그 주도적인 목적은 성토마스 아퀴나스의 진정한 사상을 복원하는 것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학설과 현대의 모든 철학의 통합을 지향하여 지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 20) 遠藤周作, 『日本の感性の底にあるもの』, 『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巻, 新潮社, 1999, p.304

다른 땅에서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땅이 바뀌면 시드는 수가 있소. 그리스도교라는 나무는 다른 나라에서는 잎도 무성하고 꽃도 피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본에서는 잎이 시들고 꽃봉오리 하나 열리지 않을 것이오. 토양의 차이, 물의 차이를 신부는 생각해 본적은 없을 테지.

ある土地では稔る樹も、土地が変れば枯れることがある。切支丹とよぶ樹は異国においては、葉も茂り花も咲こうが、我が日本国では葉は萎え、つぼみ一つつけまい。土の違い、水の違いをパードレは考えたことはあるまい。21)

이노우에는 서구의 그리스도교라는 나무는 범신론적 풍토인 일본 땅에서는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 로드리고의 배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의 옛 스승이며 일본교구의 교구장이었던 페레이라는 서구와 전혀 다른 일본의 풍토를 ‘늪지(沼地)’란 말로 비유하고 있다.

이 나라는 늪지다. 결국에는 자네도 알게 되겠지만.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늪지였네. 어떠한 묘목을 그 늪지에 심어도 뿌리는 썩고 잎은 누렇게 시들어 갈 것이야. 우리들은 이 늪지에 그리스도교라는 묘목을 심고 말았던 것이네.

この国は沼地だ。やがてお前にもわかるだろうな。この国は考えていたより、もっと恐ろしい沼地だった。どんな苗もその沼地に植えられれば、根が腐りはじめる。葉が黄ばみ枯れていく。我々はこの沼地に基督教という苗を植えてしまった。22)

페레이라는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것을 심어도 썩어버리는 늪지와 같은 곳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엔도는 일본의 풍토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늪지(沼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수렁’(『沈黙』), ‘일본적 감성의魔力’(『誕生日の夜の回想』), ‘식물적인 자세’(『堀辰雄論覚書』)라고도 명명하고 있다.

일본이 뭐든지 삼켜버리는 늪지와 같다는 말에 반발하는 로드리고를 페레이라는 가엾다는 듯이 일본에서 이십여 년의 포교활동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21) 遠藤周作, 『沈黙』, 『遠藤周作文学全集』第2巻, 新潮社, 1999, p.266

22) 앞의 글, p.295

하지만 사베리오 성인이 가르치신 데우스라는 말도 일본인들은 제멋대로 다이니치(大日)라고 부르는 신앙으로 변형시키고 있었던 것이야. 태양을 숭배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데우스와 다이니치는 거의 비슷한 발음이지...(중략)...데우스와 다이니치를 혼동했던 일본인들은 그때부터 우리들의 신을 그들 식으로 굴절시키고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일세. 말의 혼란이 없어진 뒤에도 이러한 굴절과 변화는 은근하게 계속되어 자네가 좀 전에 말한 포교가 아주 성황 했던 때에도 일본인들은 그리스도교의 신이 아니라 그들이 굴절시킨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네...(중략)...그것은 신이 아니야.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똑 같은 것이지. 처음에 그 나비는 분명히 나비임에 틀림없었지. 하지만 다음날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나비의 날개와 몸통을 갖고 있으면서 실체를 잃은 시체가 되어 가는 것이지. 우리들의 신도 이 일본에서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외형과 형식은 신처럼 보이지만 이미 실체 없는 시체가 되어 버린 것이네.

だが聖ザビエル師が教えられたデウスという言葉も日本人たちは勝手に大日とよぶ信仰に変えていたのだ。陽を拝む日本人にはデウスと大日とはほとんど似た発音だった。...(中略)...デウスと大日と混同した日本人はその時から我々の神を彼等流に屈折させ変化させ、そして別のものを作りあげはじめたのだ。言葉の混乱がなくなったあとも、この屈折と変化とはひそかに続けられ、お前がさっき口に出した布教がもつとも華やかな時でさえも日本人たちは基督教の神ではなく、彼等が屈折させたものを信じていたのだ。...(中略)...あれは神じゃない。蜘蛛の巣にかかった蝶とそっくりだ。始めはその蝶はたしかに蝶にちがいがなかった。だが翌日、それは外見だけは蝶の羽根と胴とをもちながら、実体を失った死骸になっていく。我々の神もこの日本では蜘蛛の巣にひっかかった蝶とそっくりに、外形と形式だけ神らしくみせながら、既に実体のない死骸になってしまった。<sup>23)</sup>

페레이라는 일본이라는 늪지는 어떤 외래의 문화도 종교도 흡수하여 자신들의 형편에 알맞게 굴절시키고 변형시켜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전해진 그리스도교도 일본화 되어 다른 형태의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포교의 무용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일본의 범신론적 감각과 외래문화수용 감각에 대하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도 「神々の微笑」에서 언급하고 있어 흥미롭다. 기리시탄 시대에 일본에 포교하려는 오르간디 신부 앞에 ‘이 나라의 靈’이라는 노

---

23) 앞의 글, pp.295~296

인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힘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바꾸는 힘(破壊する力ではありません。造り変へる力)”이기 때문에 “데우스도 이 땅의 사람으로 변할지 모른다(泥烏須自身も、此の国の土人に変るでせう)”<sup>24)</sup>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엔도는 「神々の微笑」의 오르간디 신부란 서구의 그리스도교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와 대립하는 노인은 일본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일본의 풍토에 대한 지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외국의 종교나 사상도 일본에 이식하면 그 뿌리가 썩고 그 실체가 소멸하여 외형만은 분명히 예전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일본의 정신풍토에 대한 지적이다.

いかなる外国の宗教も思想もそこへ移植すればその根が腐り、その実体が消滅し、外形だけはたしかに昔のままだが、実は似而非なるものになってしまう日本の精神風土を指摘していることだ。<sup>25)</sup>

이어서 엔도는 아쿠타가와는 일본의 ‘바꾸는 힘’을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문맥상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엔도는 다음과 같이 페레이라의 입을 통하여,

일본의 그리스도교가 멸망한 것은 자네가 생각하듯이 금지의 탓도 박해의 탓도 아니네. 이 나라에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네.

切支丹が亡びたのはな、お前が考えるように禁制のせいでも、迫害のせいでもない。この国にはな、どうしても基督教を受けつけぬ何かがあったのだ。<sup>26)</sup>

일본의 바꾸는 힘에 의하여 가톨릭의 포교가 일본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沈黙』의 마지막 장면에서 로드리고가 새로운 그리스도상을 획득하게 되는 점에서 보면 엔도는 이 바꾸는 힘을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범신론적인 일본 풍토 속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수용 가능성

24) 芥川龍之介, 「神々の微笑」, 『芥川龍之介全一冊』, 第三書館, 1986, p.180

25) 遠藤周作, 「『神々の微笑』の意味」, 『文芸読本芥川龍之介』, 河出書房, 1979, p.108

26) 遠藤周作, 『沈黙』, p.298



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바꾸는 힘이란 껍습<sup>27)</sup>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불교, 유교,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외래사상도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탄압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골탈태 혹은 습합이라는 정신적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저항과 변질을 거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sup>28)</sup> 일본이란 토양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외래문화의 변용력이 뛰어난 것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로드리고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일본의 범신론적인 풍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바위와 같은 무게가 자신의 가슴을 억누르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어렸을 때 신은 존재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와 같은 중력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그리스도교와 교회는 모든 나라와 토양을 초월하여 진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포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基督教と教会とはすべての国と土地とをこえて眞実です。でなければ我々の布教に何の意味があつたらう。<sup>29)</sup>

로드리고의 이 항변은 이제까지의 일본의 범신론적 정신풍토를 지적한 페레이라의 일본이란 늪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교의 수용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스도교가 일본에서도 포교, 정착될 수 있는 종교임을 토로하는 로드리고의 항변은 잡지『雲』(1966)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가톨릭은 솔로가 아니라 대교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깨끗한 면도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가장 추악하고 싫은 부분에도 대교향악을 울리지

27) 일본의 토착 종교인 神道와 인도에서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유입된 가장 선진적인 종교인 불교와 중국에서 발생하여 생활 규범적 도덕률이 된 유교, 이 세 가지를 배우고 종합한다는 사고방식이다. 聖德太子에 의해 일본인들의 마음을 구현 시킨 神, 仏, 儒의 껍습사상이 창시되고 실천되기도 하였다.

28) 宮内 豊, 『沈黙』論, 『解釈と鑑賞』51卷10号, 至文堂, (1986.10), p.100

29) 遠藤周作, 『沈黙』, p.297

못한다면 거짓 종교이겠죠. 내게 가톨릭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다른 종교보다 더 대교향악을 울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는 거의 대교향악을 연주하지 못하고 솔로밖에 연주할 수 없지요. 가톨릭 사상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늪지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반향의 음을 내지 못한다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カトリックというのはソロじゃない、大交響樂だと思っています。人間のきれいな面にも応ず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最も汚ない部分、いやな部分にも大交響樂を鳴らすのじゃなきゃ、嘘の宗教だ。僕に、カトリックというものに対して信頼感があるとするなら、ほかの宗教にもまして大交響樂を鳴らしてくれ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からです。ほかの宗教はほとんど大交響樂をならさない。ソロかならさない。カトリズムだけがならしてくれる。そして日本の泥沼にもそれに応じた反響の音をならさなくちゃ嘘だと思うのです。その音は何かということを見つけないのです。

즉 서구의 일신론적인 그리스도교라는 나무를 전혀 다른 범신론적인 정신 풍토를 갖는 일본이라는 늪지에 심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뿌리 내리지 못한 묘목은 시들어 버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무한한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 할리 없다. 그리스도교라는 대교향악의 어딘가에는 일본의 전통과 어울리는 선율이 반드시 있을 터이니 이러한 선율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톨릭 작가로서의 엔도의 의지를 충분히 엿 볼 수 있다. 늪지와 같은 일본의 범신론적 정신풍토를 단지 지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일본이라는 늪지대에서도 반향 하는 그 음을 찾아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적 그리스도교의 수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일본 가톨릭 작가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Ⅲ.그리스도상의 변화

#### 1. 로드리고에 있어서의 약자상

엔도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은 악인과 선인, 악마적 인간과 성자적 인간, 범인과 영웅, 배교자와 순교자, 약자와 강자등 이원적 대립의 구도를 취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엔도 소설의 이원적 구도의 근원에는 천국과 지옥, 천상과 지상, 신과 악마, 신과 인간, 정신과 육체, 자유와 구속, 빛과 어둠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이원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30)</sup>

엔도 문학을 약자의 복권이라고 보는 논의 있는 것처럼 엔도 문학에는 많은 약자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약자상의 조형은 초기소설부터 보이는 엔도 문학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약자를 주제로 하는 것은 그의 문학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대 일본 문학이 오랫동안 조형하여 온 인간상이며 특히 전후 일본문학이 집요하게 복위시키려고 힘쓴 인간상이었다.<sup>31)</sup> 그러나 엔도의 약자상은 다른 작가들이 조형한 사회적 소외자이거나 극도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도망 노예적인 자의식 과잉자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나의 존재질서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질서 밖으로 나와서 사는 길 외에 자신의 고유의 삶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약자를 그리고 있다.

엔도 문학에서 강자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일관된 주의 주장을 갖고 살며 이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신앙에 일관하는 인간들을 말한다. 이와 대극적으로 약자란 자신의 주의 주장도 없고 또 이상을 관철하는 의지력조차 없어서 약한 천성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지리멸렬한 모순에 가득 찬

30) 武田友寿, 『遠藤周作の文学』, 聖文社, 1975, pp.25~26

31) 앞의 글, pp.59~60

인물로 『黄色い人』의 듀란, 『海と毒薬』의 스구로(勝呂), 『沈黙』의 기치지로는 그 대표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沈黙』의 기치지로는 천성이 약하고 자기 신념이 부족하여 배교와 신앙회복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沈黙』 이전의 작품에서도 약한 심성으로 인하여 배교한 약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最後の殉教者』(1959)에서는 타고난 겁쟁이였던 까닭에 동료 를 배반하고 배교한 기스케(喜助)의 고뇌를 중심으로 강자와 약자의 두 타입의 인간이 나오는데 기스케는 바로 『沈黙』의 기치지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沈黙』의 전주곡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단편집 『哀歌』<sup>32)</sup>에서 역시 심약한 천성 때문에 배교하는 약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천성이 겁쟁이인 탓에 배교하는 「その前日」의 도고로(藤五郎), 육체적 정신적인 약자인 「札の辻」의 서양의 수도사 네즈미, 그리고 「帰郷」에 등장하는 배교자의 후예들 역시 『沈黙』의 기치지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약자들 “나도 네즈미도 형장에 가기 전에 후미에<sup>33)</sup>든 뭐든 밟을 무리중의 한 사람이다(自分もネズミも、刑場に行く前に踏絵でもなんでも踏むにちがいない連中の一人である)”<sup>34)</sup>라고 자각하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배교증서라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自分や妻子の命を全うするために、転び証文さえ作ったかもしれない)”<sup>35)</sup>라고 독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약자들은 작자의 분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沈黙』의 약자상은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약자의 구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모성적인 그리스도상과 연관되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기치지로는 종전의 작품에 보이는 약자들과는 달리 로드리고의 주위를 끊임 없이 감돌면서 시종일관 유다로서 로드리고를 자극한다. 이러한 유다와 같은 약자, 기치지로를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로드리고에게 주어

32) 병상체험(1950년 2월~1953년 5월) 이후에 발표된 단편 모음집으로 「その前日」(1963), 「札の辻」(1963), 「男と九官鳥」(1963), 「帰郷」(1964), 「雲仙」(1965)등이 수록되어 있다. 『沈黙』의 서주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단편집으로 엔도 문학에서 전환기적 작품군이라고 볼 수 있다.

33) 에도(江戸)시대에 그리스도교를 금지하기 위하여, 성모마리아상이나 십자가상등을 목판, 또는 동판 등에 새겨서 그것을 밟게 하여 신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한 일, 또는 그 像을 말한다.

34) 遠藤周作, 「札の辻」, 『遠藤周作文学全集』第7卷, 新潮社, 1999, p.177

35) 遠藤周作, 「雲仙」, 『遠藤周作文学全集』第7卷, 新潮社, 1999, p.219

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로드리고는 일본에서 안내역할을 할 기치지로를 만나고 나서 기치지로의 첫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틀거리면서 술주정꾼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중략)...술이 취해 있는데도 아주 교활한 눈을 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눈길을 피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よろめくようにして一人の酔っぱらいが部屋に入ってきました。...(中略)...酔っているくせに狡そうな眼をした男でした。私たちの会話中、時々、眼をそらしてしまうのです。36)

로드리고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 눈길을 피해버리는 기치지로를 보고 교활하다고 생각하였고 일본으로 향해하는 동안에 중국인 선원들을 대하는 기치지로의 행동을 보면서 첫 인상은 더욱 확고하게 굳혀져 간다.

이 말에 술에 취해 누렇게 뜬 일본인의 눈이 교활하게 번쩍이면서...(중략)...마치 변명이라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この言葉に酒に酔って黄色く濁った日本人の眼が狡そうに光り、...(中略)...まるで弁解でもするように呟きました。37)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듯한 기치지로의 불안한 행동은 로드리고로 하여금 기치지로를 믿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 로드리고와 같이 일관된 삶을 사는 강자에게 이러한 기치지로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로드리고가 기치지로를 만났을 때의 인상을 ‘교활한 눈’ ‘눈길을 피하는 눈’등 ‘눈’을 중심으로 기치지로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눈에 대한 작자의 남다른 관심은 중국의 大連에서 부모의 불화로 우울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어린 엔도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던 잡종견의 기억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엔도의 문학 작품에

36) 遠藤周作, 『沈黙』, pp.193~194.

37) 앞의 글, p.194

서 등장하는 인간을 응시하는 동물들의 슬픈 눈에서 그리스도의 슬픈 눈을 연상했던 것도 이러한 유년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당시의 개는...(중략)...그 무렵 나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말 상대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부모는 이혼했지만 그러한 사실은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럴 때 어린아이란 개에게 말을 하지요? 그 때의 나를 보는 개의 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던 만주소년이 이따금씩 슬픈 얼굴을 했다.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야단맞을 때 부모와 내 사이에 들어와서 감싸주었다. 그럴 때의 그의 눈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예를 들면 『哀歌』에서 짐승이나 동물, 새의 눈이 되었다. 더 발전하여서 나의 예수의 눈길의 원점이 되었다. 이런 일이 대련 생활에 있었습니다.

當時の犬というのは、...(中略)...あそこ私にとってただひとりの話し相手でした。やがて両親が離婚しますと、そういうことを友だちにも先生にも言えない。そういう時、子どもって犬に話しますね。その時の私を見る犬の眼。それからそのボーイさんがときおり悲しそうなる顔をする。私が親に叱られたりすると、親と私とのあいだに入ってすごくかばってくれた。そういう時の彼の眼が私のなかに残っていて、たとえば後の『哀歌』(昭40)のなかの獣や動物や鳥の眼になってくる。さらに発展して私にとってイエスの眼差しの原点になった。それが大連生活であったんです。<sup>38)</sup>

엔도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그린 작품 속에서 대련을 떠나올 때 만주소년의 슬픈 얼굴과 자신의 뒷모습이 사라져갈 때까지 따라 오면서 자신을 응시하던 잡종견의 슬픈 눈망울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엔도는 『沈黙』의 초기부터 기치지로를 로드리고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암시를 그의 눈을 통하여 하고 있다.

기치지로는 로드리고를 관아에 팔아넘긴 후에도 옥사에 감금되어 있는 그를 찾아와 자신의 배교행위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고백성사를 청한다.

하지만 나에게겐 나름대로 할말이 있습지요. 후미에를 밟은 자에겐 또 그

---

38) 遠藤周作・佐藤泰正, 『人生の同伴者』, 新潮社, 1995, pp.16~17

런대로 할말이 있단 말입죠. 후미에를 제가 좋아서 밟은 줄 아십니까? 후미에를 밟은 이 밭은 아프고 쓰립니다. 못 견디게 아프구만요. 나를 이렇게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해놓고서는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요. 그건 너무 무리한 주문입죠.

じゃが、俺にゃあ俺の言い分があつと。踏絵ば踏んだ者には、踏んだ者の言い分があつと。踏絵をば俺が悦んで踏んだとでも思つとつか。踏んだこの足は痛か。痛かよオ。俺を弱か者に生れさせおきながら、強か者の真似ばせろとデウスさまは仰せ出される。それは無理無法と言うもんじゃい。39)

모키치는 강합지요. 논에 심은 강한 모종처럼 강합니다요. 하지만 약한 모종은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어도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구만요. 저처럼 천성이 약한 놈은 신부님, 이 약한 모종과도 같습지요.

モキチは強か。俺らが植える強か苗のごと強か。だが、弱か苗はどげん肥しばやっても育ちも悪う実も結ばん。俺のごと生まれつき根性の弱か者は、パードレ、この苗のごたるとです。40)

천성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모종은 아무리 잘 가꾸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천성 또한 약하게 태어난 모종과도 같아서 순교한 모키치처럼 도저히 강할 수 없다고 약자로서의 존재관을 항변한다.

사제로서의 이상과 소명감이 투철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온 강자 로드리고는 그리스도교 탄압하의 일본에서 맞는 극한 상황 속에서 점차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약자성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자루에서 그는 몇 마리의 말린 생선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굶주린 눈으로 그 말린 생선을 바라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생쌀 몇 알과 오이를 먹었을 뿐 그 밖에 먹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겐 기치지로가 내비치는 이 식량은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었다...(중략)...나는 이빨을 드러내며 한심스럽게도 그 말린 생선에 달려들었습니다. 단 한 토막의 생선으로 나의 마음은 이미 기치지로와 타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치지로는 만족한 듯,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우물거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여전히 씹는

39) 遠藤周作, 『沈黙』, p.269

40) 앞의 글, p.241

담배라도 씹고 있는 것처럼 풀만 씹고 있었습니다.

袋から、彼は幾本かの干した魚も出しました。私は飢えた眼でその干魚を眺め、唾を飲みこみました。少しの米と胡瓜をかじっただけの身にはキチジローがちらつかすこの食糧はたまらない誘惑だった。…(中略)…齒をむきだし、私はあさましくその干した魚にむしゃぶりつきました。たった一きれの魚で私の心はもうキチジローと妥協していたのです。キチジローは満足したような、蔑むような表情で、口を動かしている私を眺め、相変らず嘔み煙草でも嘔むように草を嘔んでいました。41)

늘 강자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던 로드리고는 굶주림에 지쳐 마음속에서 경멸하던 기치지로가 주는 생선토막을 자신의 신분도 체면도 내던져버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마구 먹어댄다. 극도의 피로와 허기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본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던 로드리고는 자기 자신의 약자성을 깨닫게 되고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성자와 평범한 인간, 영웅과 겁쟁이, 그리고 강자는 이와 같은 박해 시대에도 신앙을 위하여 불 속으로 뛰어들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견딜 수 있으리라. 하지만 약자는 이 기치지로처럼 산 속을 헤매고 있다. 너는 어느 쪽 인간인가? 만약 사제라는 긍지와 의무감이 없다면 나 역시 기치지로처럼 후미에를 밟았을지도 모른다.

人間には生れながら二種類ある。強い者と弱い者と。聖者と平凡な人間と。英雄とそれに畏怖する者と。そして強者はこのような迫害の時代にも信仰のために炎に焼かれ、海に沈められることに耐えるだろう。だが弱者はこのキチジローのように山の中を放浪している。お前はどちらの人間なのだ。もし司祭という誇りや義務の観念がなければ私もまたキチジローと同じように踏絵を踏んだかもしれぬ。42)

로드리고는 자신 또한 사제라는 자존심과 의무감이 없었다면 기치지로처럼 후미에를 밟았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은 자신의 약자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은 그 역시 기치지로처럼 후미에를 밟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약자 기치지로의 복위가

---

41) 앞의 글, p.238

42) 앞의 글, pp.241~242



서서히 달성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자 기치지로의 항변이 인지되면서 강자 로드리고와 약자 기치지로의 거리는 좁혀져 가고 궁극적으로 로드리고가 후미에에 발을 디뎠을 때 강자와 약자는 하나로 겹쳐지게 된다.

그는 후미에에 피와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올려놓았다. 다섯 발가락은 사랑하는 자의 얼굴 바로 위를 덮었다. 이 격렬한 기쁨과 감정을 어떻게 기치지로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 (강자도 약자도 없다. 강자보다 약자가 피로워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彼は踏絵に血と埃とでよごれた足をおろした。五本の足指は愛するものの顔の真上を覆った。この烈しい悦びと感情とをキチジローに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強い者も弱い者もないのだ。強い者より弱い者が苦しまなかったと誰が断言できよう。)43)

『沈黙』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밟고 배교자로 추락하면서 비로소 오랫동안 의문시하였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 말한 聖句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어 사랑의 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유다에게 “당신이 하려는 것을 어서 하시오”44)라고 말했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다. 로드리고는 신학생시절부터 오랫동안 이 성구의 진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이 성구의 해석 여하에 따라 유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로드리고는 단속의 눈을 피하여 산 속을 헤매던 중 우연히 기치지로를 만나 함께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기치지로가 언제 자신을 팔아넘길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위의 성구의 의미를 묻는 독백을 한다.

나는—사제가 되고나서도—이 말의 진의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땅위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속을 기치지로와 같이 발을 질질 끌고 가면서 나는 이 중요한 성서의 구절을 자신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봤다. 그리스도는 어떤 심정으로 30년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자에게 가라는 말을 던졌을까. 노

43) 앞의 글, p.325

44) 요한복음 13장 28절 (200주년 신약성서번역위원회,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분도출판사, 2002, p.539)

여움과 증오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만일 노여움 때문이라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서 이 남자의 구원만을 제외해 버렸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스도의 증오의 말을 정면으로 받은 유다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인간을 영원한 죄악으로 떨어뜨린 채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私には一司祭になってからも—この言葉の真意がよく掴めなかったのです。この立ちのぼる水蒸気の中をキチジローと足を曳きずりながら、私はこの重要な聖句を自分に引きつけて考えていた。いかなる感情で基督は銀三十枚のため自分を売った男に去れという言葉を投稿つけたのだろうか。怒りと、憎しみのためか、それともこれは愛から出た言葉か。怒りならばその時、基督は世界のすべての人間の中からこの男の救いだけは除い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基督の怒りの言葉をまともに受けたユダは永遠に救われ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そして主は一人の人間を永遠の罪に落ちるままに放っておか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45)

그리스도의 노여움의 표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유다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치지로를 위시한 그리스도교 박해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한 많은 일본신자들 역시 신에게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버리게 된다. 그러나 후미에 앞에서 로드리고는 그리스도와의 내면의 대화를 통하여 증오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함께 괴로워했다.”

“그러나 당신은 유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가서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어서 후미에를 밟으라고 말한 것처럼 유다에게도 어서 행하라고 말했다. 너의 발이 아픈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을 테니깐.”

「私は沈黙していたのではない。一緒に苦しんでいたのに」

「しかし、あなたはユダに去れとおっしゃった。去って、なすことをなせと言われた。ユダはどうなるのですか。」

「私はそう言わなかった。今、お前に踏絵を踏むがいいと言っているようにユダにもなすがいいと言ったのだ。お前の足が痛むようにユダの心も痛んだのだから。」<sup>46)</sup>

---

45) 遠藤周作, 『沈黙』, p.239

46) 앞의 글, p.325

유다는 물론이고 로드리고와 같은 배교자들의 아픔을 느끼고 이들을 위하여 같이 고통 받는 그리스도의 애민의 정에 의하여 말해진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유다의 구원문제는 엔도가 오랫동안 지녀왔던 의문으로 초기소설 이래 자주 언급하고 있다. 『黄色い人』에서는 배교자 듀란의 일기 속에 다음과 같이 유다의 문제가 언급된다.

주여. 이제 당신을 알 수 없게 되었다...(중략)...지금이야말로 나에게는 당신이 그 최후의 만찬 날 유다에게 “가서 네가 하고자하는 일을 하라”고 쫓아냈을 때의 그 냉혹한 표정을 확실히 알 것 같은 기분이다. 유다도 만약 당신의 제자였다면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질 당하면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인간의 한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어찌하여 그를 버리셨단 말인가.

“유다여, 나는 너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무한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성서에는 단지 무서운 당신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主よ。もうあなたがわからなくなった。...(中略)...今こそ私には、あなたがあの最後の晩餐の日、ユダに「往きて汝の好むことをなせ」と追われた時の冷酷な表情をはっきりと掴めるような気がする。ユダも、もし、あなたの弟子であったならば、そしてまた、その救いのためにあなたが十字架を背おい、鞭うたれ、死なねばならなかった人間の一人であったならば、あなたは、なぜ、彼を見捨てられたのだろうか。

「ユダ, 私はお前のために手をさしのべている。すべて許されぬ罪とは, 私にはないのだから。なぜなら, 私は無限の愛だから」あなたは決してそうは言わなかった。聖書にはただ怖ろしいこのあなたの言葉がしるされてあるだけなのです。47)

자신이 유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듀란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다도 만약 당신의 제자였다면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질 당하면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인간의 한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어찌하여 그를 버렸나”라고 의문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黄色い人』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오의 말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8년 후에 쓰여진 「その前日」에서 세 번째 폐 수술을 받는 전날 주

47) 遠藤周作, 『黄色い人』, 『遠藤周作文学全集』第6巻, 新潮社, 1999, p.105

인공 ‘나’는 이노우에 신부에게 이 성구의 의미를 물어본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심리는 마음 속 깊이 사랑하지만 자신을 배반한 여자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과 증오가 혼합된 감정과 비슷하다고 답을 한다. 이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애민의 마음에서 나온 사랑의 말이라고 다소 이단적인 해석에 집착한다.

이것은 명령적인 말이 아닌데. 어찌면 원전을 번역하면서 점점 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중략)...너는 어차피 그것을 행하겠지. 그렇게 하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서 행하여라. 그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있으며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業을 알고 있기에.

これは命令的な言葉ではないな。ひょっとすると原典からの訳が断々、ちがってきたのではないか。...(中略)...お前はどうせそれを為すだろう。為しても仕方がないことだ、だからやりなさい。そのために私の十字架があり、私は十字架を背負うという意味がこめら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基督は人間のどうにもならぬ業を知っているしな。48)

나는 이노우가 반대해도 자신이 조금은 이단적인 의견을 고집하면서 보지 못한 후미에를 마음속에 그려봤다. 수술하기 전에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 어쩔 수 없다. 이노우에의 말에 의하면 썩기 시작한 나무들이 둘러진 동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상은 거의 마멸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밟은 인간의 발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조금씩 흠집을 내어 마모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상처는 동판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다. 도고로도 그것을 밟았을 때 발에 어떤 아픔을 느꼈을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한 인간의 아픔은 동판 위의 그리스도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는 인간의 아픔과 연민의 정에 못 이겨서 “어서 빨리 행하거라”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던 것이다.

私は井上に反対されても自分のやや異端的な意見に固執しながら、見なかった踏絵をふと心に浮べた。手術の前に見たかったが、それができないなら仕方がない。井上の話によると腐りかけた梓木にかこまれた銅版の基督像は摩滅していたという。それを踏んだ人間の足が基督の顔を少しずつ傷つけ、すりへらしていったのだ。しかし傷ついたのは銅版の基督だけではないのだ。藤五郎もそれを踏んだとき、足にどのような痛みを感じたかわかる気がする。その人間の痛みは銅版の基督にも伝わっていくのだ。そして彼は人間が痛む

48) 遠藤周作, 『その前日』, 『遠藤周作文学全集』第7巻, 新潮社, 1999, p.88

ことに耐えられない。だから憐憫の情にかられて「速に汝の為すところを為せ」と彼は小声で言うのだ。49)

여기서는 유다로 대표되는 약자의 고뇌를 공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애민의 정에서 발해진 신의 위안의 말로 변하고 있다. 즉 예수는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업을 알고 있기에 배신자인 유다의 행위마저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려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沈黙』과 동일선상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엔도가 오랫동안 의문시 해왔던 유다의 구원문제는 『沈黙』에서 그리스도교 탄압 하의 일본에서 배교자로 전락하는 기치지로와 로드리고의 약자상의 조형을 통하여 약자의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리얼리티를 가지고 그리고 있다.

어서 밟거라. 네 발의 아픔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어서 밟거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노라.

踏むがいい。お前の足の痛さをこの私が一番よく知っている。踏むがいい。私はお前たちに踏まれるため、この世に生れ、お前たちの痛さを分つため十字架を背負ったのだ。50)

이와 같이 로드리고는 자신의 약자성을 인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신을 만나게 된다. 지난날 결코 기치지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로드리고 신부는 후미에를 밟는 순간에 죽고 지금 다시 새로운 신앙으로 태어났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와 같은 배신행위를 한 로드리고를 용서하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모성적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약함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할 수밖에 없는 신의 모습이란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더불어 고통을 나누어 갖는 ‘모성적 그리스도’였다.

엔도의 문학적 영위는 이처럼 늘 ‘인간적인 사랑’을 지향한다. 그것은 엔도의 가톨릭 작가로서의 당연한 자세일지도 모르지만 신을 개념적으로 이해

---

49) 앞의 글, p.88~89

50) 遠藤周作, 『沈黙』, p.312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 그 자체로서 그리는 것에 엔도는 작가로서의 모든 노력을 쏟아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엔도의 작품에서 긍정적인 작중 인물이 모두 약자라는 점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약함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으며, 약자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성’과 같은 것임을, 엔도는 약자상의 조형을 통하여 그리려고 했던 것이다.

## 2. 로드리고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상의 변화

엔도는 에세이 「異邦人の苦惱」에서 『沈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인공의 내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의 변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沈黙』이라는 소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해설과 분석을 받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주인공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 변화이다.

『沈黙』という小説は、そこにさまざまな主題が含まれているために、いろいろな批評家から、さまざまな解説や分析を受けたけれども、私にとって一番大切なことは、外国人である主人公が、心にいだいていたキリストの顔の変化である。<sup>51)</sup>

로드리고는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할 때부터 일본에 건너와서 후미에를 밟을 때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린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변화, 즉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절망할 때마다 점차 변화하여 강한 부정적인 모습에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모성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에서 겪는 로드리고의 내적 갈등은 그가 평소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변화와 더불어 전개되고 있어서 작자의 주도면밀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51) 遠藤周作, 「異邦人の苦惱」, 『遠藤周作文学全集』第13卷, 2000, p.175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얼굴은 실제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몇 세기에 걸쳐 화가들은 모든 인간들의 기도와 꿈을 담아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럽게(もっとも美しく、もっとも聖らかに)’<sup>52)</sup> 표현하여 왔다.

나는 어려서부터 수 없이 그 분의 얼굴을 마치 연인의 모습을 미화하듯 가슴 속에 간직했습니다. 신학생 시절 수도원에 있을 때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 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私は子供の時から、教えきれぬほどそのお顔をまるで恋人の面影を美化するように胸にだきしめたのです。神学生の時、修道院にいる時、私は眠れぬ夜、彼のうつくしい顔をいつも心に甦らせました。<sup>53)</sup>

로드리고는 어린 시절부터 연인의 모습을 미화하듯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마카오에서 일본잡복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신학생 때 본 그림 그대로 그의 꿈과 이상을 격려하듯이 ‘씩씩하고 힘찬 얼굴(雄々しい力強い顔)’<sup>54)</sup>이었다. 일본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높은 이상과 소명감으로 가득 찬 젊은 사제에게 비쳐진 그리스도는 그를 격려하듯 씩씩하고 힘찬 남성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로드리고는 동료사제 가르페와 함께 무사히 일본에 상륙하며 고토(五島)섬에 잠복하여 포교활동을 펼쳐나갈 때도 이러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박해 하에서 고초를 겪는 일본신자들의 처참한 실상에 접하게 되면서 로드리고는 신의 침묵에 대한 회의 등 종래의 자신의 신앙과는 배치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로드리고의 심리와 더불어 숭고함을 잃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얼굴은 서서히 변하여 간다.

이교도의 나라 일본에서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만을 꿈에 그리던 로드리고는 도모기 마을의 신자인 모키치와 이치조가 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동료 사제인 가르페와 헤어져 산 속

---

52) 遠藤周作, 『沈黙』, p.233

53) 앞의 글, p.215

54) 앞의 글, p.198

을 도망 다닌다. 피로와 불안에 휩싸인 채 계속되는 행보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로드리고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기 위하여 물웅덩이를 발견하고는 허리를 굽히는 순간 하얀 구름이 비치고 로드리고는 손으로 휘저었다. 그러자 구름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난다.

한 남자의 얼굴이—피로에 지친 일그러진 얼굴이 그 곳에 떠올랐습니다. …(중략)…하지만 지금 빗물 위에 비친 얼굴은 진흙과 수염으로 더럽고, 불안과 피로 때문에 잔뜩 비뚤어지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一人の男の顔が—疲れ凹んだ顔がそこに浮んできました。…(中略)…だが今、雨水にうつるのは泥と髭とでうすぎたなく汚れ、そして不安と疲労とですっかり歪んでいる追いつめられた男の顔でした。<sup>55)</sup>

물웅덩이에 비친 그리스도의 얼굴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라 “진흙과 수염으로 더럽고, 불안과 피로로 잔뜩 일그러지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처참한 현실 속에서 목적지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끝없이 산을 타고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육신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로드리고의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의 내부에서 절대 신앙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드리고는 한밤중에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신자들을 아무 감동 없이 집어삼키고 그들의 죽음 뒤에도 침묵만 지키는 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기치지로의 밀고로 체포되어 나가사키의 옥사에 감금된 로드리고는 투옥된 신자들과 함께 기도문을 바치고 고백성사도 해주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감마저 느낀다. 그것은 도모기 마을 이래 오랜만에 사제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데서 오는 안도감이었으며 그의 신앙심이 잠시나마 회복되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이 그날 밤 로드리고는 어두운 숲 속에서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만나게 된다.

---

55) 앞의 글, pp.232~233



그 때, 가만히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느꼈다. 파랗고 맑은 눈이 위로라도 하듯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있는 얼굴이었다.

その時、じっと自分に注目している基督の顔を感じた。碧い、澄んだ眼がいたわるように、こちらを見つめ、その顔は静かだが、自信にみち溢れている顔だった。56)

고통 받고 있는 로드리고를 위로하듯이 파랗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배경으로 하는 강하고 위엄 있는 얼굴이 아니라 고통 받는 인간을 위로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자신감에 찬 그리스도의 얼굴은 로드리고의 내면에 자신의 신앙과 사제로서의 소명감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이 투영되어 있다.

옥사로 찾아와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치지로에게 로드리고는 고백성사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한 사랑의 행위가 떠오르자 갈등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이런 인간까지 버리지 않으려 하셨던 그 분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기치지로는 그러한 악인보다도 더 못하다는 생각에 미치자 결국 불쾌감을 누르고 그저 습관대로 고백성사의 마지막 기도문을 외우고 만다. 로드리고는 고백성사를 주지만 그것은 사제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다. 결코 그의 교활한 눈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로드리고의 의식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만나며 자신과의 내적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얼굴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눈물어린 부드러운 눈으로 가만히 이쪽을 응시하였을 때 사제는 지금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ふたたび基督の顔が自分に近づき、うるんだ、やさしい眼でじっとこちらを見つめた時、司祭は今日の自分を恥じた。57)

---

56) 앞의 글, p.263

57) 앞의 글, p.271

로드리고는 의무감으로 기치지로에게 고백성사를 주고 난 후 ‘눈물 어린 부드러운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분은 죄 많은 인간들밖에 찾지 않았는데 자신은 그러한 사랑을 닮지 못했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로드리고를 응시하는 그리스도의 눈이 ‘과량고 맑은 눈’에서 ‘눈물어린 부드러운 눈’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로드리고는 계속하여 일본인 신자들의 처참한 죽음과 동료 가르페의 죽음을 목격하고 신의 침묵을 향한 공포가 깊어 간다. 그리고 그날 밤 겿세마니에서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고, 땀과 핏방울이 방울져 떨어지는 수난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로드리고의 뇌리에서 초점을 맞춘다. 일본인 신자의 처참한 죽음과 동료 가르페의 죽음은 로드리고를 배교시키기 위하여 이노우에가 꾸민 심리적 고문이었다. 과연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왜 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로드리고는 엄습해오는 불안과 공포를 견디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난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떠올렸다.

그분도 그날 밤 신의 침묵을 예감하고 두려움에 전율하였을까? 사제는 생각하기 싫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을 느닷없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사제는 두세 번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중략)... 바다는 끝없이 넓고 애달프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때도 하느님은 바다 위에서 그저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낡빛 바다의 기억과 함께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중략)...사제는 오랫동안 그것을 그분의 기도소리라고 생각하였을 뿐 신의 침묵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あの人もその夜、神の沈黙を予感し、おそれおののいたのかどうか。司祭は考えたくはなかった。だが、今、彼の胸を不意に通るすぎ、一つのその声を聞くまいとして司祭は二、三度烈しく首を振った。...(中略)...海はかぎりなく広く哀しく広がっていたが、その時も神は海の上でただ頑なに黙りつづけていた。「エロイ・エロイ・ラマ・サバクタニ」(なんぞ、我を見棄て給うや)突然、この声が鉛色の海の記憶と一緒に司祭の胸を突きあげてきた。...(中略)...司祭はそれを長い間、あの人の祈りの言葉と考え、決して神の沈黙への

恐怖から出たものだとは思ってはいなかった。58)

그리스도의 수난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sup>59)</sup>라는 외침의 의미를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그 소리가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기도소리라고 여겨왔지만 문득 신의 침묵에 대한 그리스도의 공포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로드리고는 순교를 선택하고 나가사키 시내를 말에 태워져 조리돌림을 당한다. 군중들의 조소를 들으며 안장도 없는 말 위에서 그는 수난의 그리스도 또한 지금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공포를 음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더 십자가 위의 그 분과 결합되어 있다는 기쁨이 갑자기 사제의 가슴에 강하게 치밀어 올라왔다. 그 분의 얼굴은 이 때 일찍이 없었던 생기 있는 이미지를 동반하여 그에게 다가왔다. 괴로워하는 그리스도, 인내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은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그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更に十字架上のあの人と結びあっているという悦びが突然、司祭の胸を烈しく疼かせた。あの人顔はこの時、かつてないほどいきいきとしたイメージを伴って彼に迫ってきた。苦しんでいる基督、耐えている基督。その顔に自分の顔はまさに近づいていくことを彼は心から祈った。60)

이 때의 그리스도는 ‘괴로워하고 인내하는 얼굴’로 여느 때보다 생생한 모습으로 로드리고에게 다가온다. 로드리고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공포감은 그리스도 또한 수난 전날 밤 똑같이 느꼈던 감정이었음을 떠올리며 그리스도 역시 자신과 더불어 고통 받고 인내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면서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괴로워하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 약자

---

58) 앞의 글, p.287

59) 마르코복음 15장 35절 :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200주년 신약성서번역위원회,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p.265)

60) 遠藤周作, 『沈黙』, p.303

들의 고통을 더불어 하는 ‘동반자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으로 변화되어 있다.

배교를 거부한 로드리고는 마을을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난 후에 어둡고 악취가 코를 찌르며 바닥은 오줌에 눅눅히 젖어 있는 옥사에 넣어진다. 그리고 내일 다가올 고문과 죽음을 기다리면서 벽에 쓰여진 ‘주님을 찬미하라 (LAUDATE EUM)’는 글을 발견한다. 자신처럼 옥사에 갇혔던 어느 선교사가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 라틴어로 벽에다 새겨놓은 글씨라고 추측한다. 그 선교사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결코 신을 버리지 않았으며 오직 신앙에 불타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로드리고는 갑자기 통곡할 만큼 감동적인 기분이 된다. 그것은 로드리고에게 크나큰 위안을 주었다. 최후까지 자신은 그 어떠한 형태로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날 한밤중에 로드리고는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은 지금도 이 어둠 속에서 바로 그의 가까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있지만 부드러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네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마치 그 얼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나도 곁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끝까지 네 곁에 나는 있겠다)

その顔は今もこの闇のなかですぐ彼の間近にあり、黙ってはいるが、優しみをこめた眼差しで自分を見つめている。(お前が苦しんでいる時) まるでその顔はそう言っているようだった。(私もそばで苦しんでいる。最後までお前のそばに私はいる) 61)

그리스도는 여전히 침묵은 하고 있지만 ‘부드러운 눈’으로 ‘네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도 곁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속삭이듯 로드리고를 지켜보고 있다. 앞에서도 부드러운 눈초리와 인간의 고통을 더불어 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로드리고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은 최후의 후미에를 밟는 순간에 로드리고의 그리스도상을 ‘모성적 그리스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작자가 준비한 복선이기도 하다. 즉 작자는 로드리고의 마음에 품고 있

---

61) 앞의 글, p.304

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서서히 변화시켜 가면서 그 변화를 통하여 그의 그리스도상이 질서와 위엄이 서려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에서 '모성적 그리스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환이 결정적이 된 것은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밟는 장면에서 이다.

전날 밤 토굴 속에서 감방지기의 코고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린 신자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 로드리고는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것은 이노우에가 로드리고를 배교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에게 가한 고문이었다. 로드리고가 배교하지 않는 한 신자들은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 역시 지금 여기에 있다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배교했을 것이라는 페레이라의 끝없는 회유에 로드리고는 쓰러질 듯이 후미에 가까이 가서 그 목판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

가느다란 팔을 벌리고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흉한 얼굴이었다.

それは細い腕をひろげ、茨の冠をかぶった基督のみにくい顔だった。<sup>62)</sup>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접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희미하고 혼탁해진 눈으로 잠자코 내려다보았다. 약간 더럽혀진 목판에 조잡한 구리로 된 메달이 박혀져 있었으며 그것은 가느다란 팔을 벌리고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흉한 얼굴이었다. 로드리고가 헤아릴 수 없이 떠올렸던 그분의 얼굴이었다. 도모기 마을의 산 속에 숨어있을 때, 산속을 헤맬 때, 옥사에서 언제나 생각 해내며 위로를 받았던 그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귀한 존재로 그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로드리고는 자신의 발로 밟으려고 하고 있다. 사제는 두 손으로 후미에를 들어올려 얼굴에 갖다 대었다.

후미에 속의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마멸되고 움푹 파인 채 사제를 슬픈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한 줄기

---

62) 앞의 글, p.312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다.

踏絵のなかのあの人は多くの人間に踏まれたために摩滅し、凹んだまま司祭を悲しげな眼差して見つめている。その眼からはまさにひとしずく涙がこぼれそうだった。63)

후미에의 그리스도의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마멸되고 움푹 파인 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슬픈 눈’으로 로드리고를 바라보고 있다. 위엄과 의지적인 힘이 넘치는 얼굴이 아니라 피곤에 지친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다.

이 ‘슬픈 듯한 눈’이라는 표현은 『沈黙』이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어 보인다. 『哀歌』에 수록된 「四十歳の男」에서는 개나 새의 눈과 중첩되어 묘사되기도 한다.

마흔이 다 되어서 노세는 개나 새의 눈을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차갑게 보이고 비인간적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슬픔을 가득히 머금은 듯한 눈이다. …(중략)…그 새와 같이 슬픔을 띤 눈을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 의식하게 되었다. 특히 그 날의 사건 이래 그 눈은 노세를 언제나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단지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四十歳ちかくなって能勢は犬や鳥の眼を見るのが好きになった。ある角度から眺めると冷たく、非人間的なのに、別の角度から見ると哀しみをじっとたたえたような眼である。…(中略)…その鳥と同じような、哀しみをたたえた眼を彼は自分の人生の背後に意識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眼は特にあの日の出来ごと以来、能勢をいつもじっと見つめていつような気がする。見つめているだけではなく、何かを自分に訴え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64)

마흔이 다 되어서 노세(能勢)는 개나 새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새나 개의 눈은 슬픔을 가득히 머금은 듯이 보였다. 그리고 ‘새와 같이 슬픔을 가득 머금은 눈’, 즉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눈을 슬픔을 가득히 머금은 새의 눈의 이미지와 중첩하고 있는 이유는 『狐狸庵閑話』에 수록된 「廢墟の眼」(1963)을 보

---

63) 앞의 글, p.312

64) 遠藤周作, 「四十歳の男」, 『遠藤周作文学全集』第7巻, 新潮社, 1999, p.185

면 알 수 있다.

개와 새는 우리들 인간을 가만히 그 눈으로 본다...(중략)...그 눈에서 나는 인간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눈을 연상하게 된다. ...(중략)...나는 후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워하고 슬픈 듯한 눈을 나는 예전에 본 적이 있다.

犬や鳥は我々人間をじっとあの眼でみる。...(中略)...その眼から私は人間を見ている基督の眼を連想してしまう。私は踏絵というものに彫られた基督のくるしい...(中略)...私は踏絵というものに彫られた基督のくるしい哀しげな眼をかつて見たことがある。

개나 새가 인간을 바라보는 눈에서 엔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연상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와 새의 눈은 후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고통스럽고 슬픈 듯한 눈에서 연상되는 것이었다.

후미에의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은 인간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개와 새들의 눈의 이미지이며 동시에 작자의 가슴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엔도의 꿈속에 보이는 어머니는 언제나 ‘애처로운 눈(哀しげな眼)’ ‘슬픔에 젖은 듯 피곤한 눈(哀しげなくたびれた眼)’으로 엔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이미지는 생존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슬픔의 성모상(哀しみの聖母像)’을 중첩<sup>65)</sup>시킨 것이다.

이처럼 ‘슬픈 듯한 눈’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후미에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슬픔의 성모상이 투영된 엔도의 모성상이며 가쿠레 기리시탄들의 숭배하는 마리아관음상의 모습과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는 후미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은 모성적인 얼굴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미에의 그리스도의 눈은 로드리고에게 어서 밟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 슬픈 듯한 눈은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로드리고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모성적인 존재라고 깨닫고 후미에에 발을 디뎠다. 그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상이 ‘모성적 그리스도’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다.

---

65) 遠藤周作, 「母なるもの」, 『遠藤周作文学全集』第8巻, 新潮社, 1999, p.51

위에서 자세히 고찰한 것처럼 작자는 로드리고의 내면적 성찰을 ‘그리스도의 얼굴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고 있다. 결국 로드리고는 자신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엄격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잘못을 덮어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존재,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 곁에서 늘 지켜 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성적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필요했음을 로드리고는 고백하고 있다. 작자는 『沈黙』 속에서 독자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돌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의 변화를 통하여 성숙되어 가는 로드리고의 내면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





## IV. 모성적 그리스도상

### 1. 엔도의 모성상

본 장에서는 로드리고가 만나는 ‘모성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작자가 그리려고 하는 ‘모성적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엔도의 모성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엔도는 1923년에 東京에서 은행원인 아버지와 바이올린을 전공한 재원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전근으로 유년 시절을 滿洲의 大連에서 보냈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엔도는 열 살 되던 해(1933년)에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때 언니의 권유로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가 된다.

유년기의 어머니의 기억을 그린 「影法師」(1968), 「母なるもの」(1969)를 보면 예술가였던 어머니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고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혼 후의 고독감을 견뎌내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에 의지하며 구도자와도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았다.

내 기억으로는 아팠을 때도 어머니 손을 잡고 잠을 잤던 경험이 어린 시절조차 없다. 항상 금방 떠오르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자의 모습이다.

記憶にある限り、病気の時、母から手を握られて眠ったという経験は子供時代にもない。平生、すぐに思い出す母のイメージは、烈しく生きる女の姿である。<sup>66)</sup>

엔도의 어린시절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아픈 어린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치열한 삶을 사는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로 남아 있었다.

---

66) 앞의 글, p.37

어머니는 예전에 단 하나의 음을 찾아서 쉬지 않고 바이올린을 켜던 것처럼, 그 당시 단 하나의 신앙을 추구해서, 엄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아직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새벽, 나는 종종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그녀가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목주를 손가락으로 굴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첫 한큐 전차를 타고, 미사를 드리러 나갔다. 아무도 없는 전차 안에서 나는 어이없이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나 때때로 눈을 떠 보면 어머니의 손가락이 목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母は、むかしたった一つの音をさがしてヴァイオリンをひきつづけたように、その頃、たつた一つの信仰を求めて、きびしい、孤独な生活を追い求めていた。冬の朝、まだ凍るような夜あけ、私はしばしば、母の部屋に灯がついているのをみた。彼女がその部屋のなかで何をしているかを私は知っていた。ロザリオを指でくりながら祈ったのである。それからやがて母は私をつれて、最初の阪急電車に乗り、ミサに出かけていく。誰もいない電車のなかで私はだらしなく舟をこいでいた。だが時々、眼をあけると、母の指が、ロザリオを動かしているのが見えた。67)

유년기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이처럼 신앙을 갖기 전에는 단 하나의 바이올린의 음을 찾아 손에 핏 멍울이 맺힐 정도로 연습을 하고 신앙인이 된 후에는 추운 겨울날 온기 없는 방에서 끊임없이 수도자처럼 목주 기도를 바치는 자신의 이상과 보다 높은 존재를 믿고 그 신념을 관철하는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구도자와 같이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어린 엔도는 늘 열등감을 느꼈던 것이다.

어머니에게 거짓말 하는 것을 배웠다. 나의 거짓말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나온 것 같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괴로움을 신앙으로 위로받을 수밖에 길이 없던 그녀는 예전에 단 하나의 바이올린의 음을 찾아 쏟았던 그 열정을 그대로 단 하나의 신에게 돌렸지만, 그 절절한 기분은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 그 때의 나에게는 숨이 막혔다. 그녀가 같은 신앙을 강요하면 할수록 나는 물에 빠진 소년처럼 그 수압을

---

67) 앞의 글, p.38

박차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母に嘘をつくことをおぼえた。私の嘘は今、考えてみると、母にたいするコンプレックスから出たようである。夫から棄てられた苦しさを信仰で慰める以外、道のなかった彼女は、かつてただ一つのヴァイオリンの音に求めた情熱をそのまま、ただ一つの神に向けたのだが、その懸命な気持は、現在では納得がいくものの、たしかに、あの頃の私には息ぐるしかった。彼女が同じ信仰を強要すればするほど、私は、水に溺れた少年のようにその水圧をはねかえそうともがいていた。68)

이렇듯 오히려 어머니의 의지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기성복처럼 입혀진 ‘교회의 그리스도’는 엔도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이미지와 동의어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머니의 모습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것은 삶과 죽음 사이를 방황하던 병상체험에서의 일이다. 이 무렵 엔도는 자주 어머니의 꿈을 꾀다.

어머니의 꿈을 꾀다. 꿈속에서 나는 가슴 수술을 받고 금방 병실로 옮겨진 듯 시체처럼 침대 위에 내던져져 있었다....(중략)...나는 의식을 반쯤 잃었을 텐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회색의 그림자가 나쁜 마취감각 중에서도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였다. 병실에는 이상하게도 의사도 아내도 없었다.

母の夢をみた。夢のなかの私は胸の手術を受けて病室に連れてきたばかりらしく、死体のようにベッドの上に放りだされていた。...(中略)...私は意識を半ば失っている筈なのに、自分の手を握っている灰色の鬚が、けだるい麻酔の感覚のなかでどうやら誰かかはわかっていて。それは母だった。病室にはふしぎに医者も妻もいなかった。69)

엔도는 이러한 꿈을 몇 번이나 꾀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뚜렷이 보일 리도 없고 그 움직임도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어머니 같기도 했지만 분명히 어머니라고 단언도 할 수 없는 이미지였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내는 아니고 더욱이 간병인도 간호사도 아니었

---

68) 앞의 글, p.42

69) 앞의 글, p.36

다. 그것은 ‘모성적인 존재(母なるもの)’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미지인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타난 것은 그러한 꿈속에서만 아니었다. 현실의 삶속에서 육교를 건너다 문득 올려다보면 구름 속에서 때로는 한밤중까지 등을 구부리고 작업을 할 때 갑자기 어머니를 등 뒤에서 의식한 적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때의 어머니는 생존시 하나의 음을 찾아서 바이올린을 계속 켜던 그 치열하고 엄격한 모습도 아니었으며, 목주를 한없이 굴리던 강인하고 구도자적인 어머니의 모습 또한 아니었다. 꿈속에서 보는 어머니는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나를 뒤에서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両手を前に合わせて、私を背後から少し哀しげな眼をして見る母)’의 모습으로 생존시의 어머니의 실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미지의 전환은 어머니의 유품인 ‘슬픔의 성모상(哀しみの聖母像)’을 어머니의 모습과 중첩시킨 것에 의한다.

조개 속에서 투명한 진주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를 언제부터인가 만들어 갔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슬픔에 젖은 듯 피곤한 눈으로 나를 보던 어머니는 현실의 기억 속에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지금은 알고 있다. 그 이미지는 어머니가 옛날 가지고 있던 ‘슬픔의 성모’상의 얼굴과 겹쳐진 것이었다.

貝のなかに透明な真珠が少しずつ出来あがっていくように、私は、そんな母のイメージをいつか形づくっていたのにちがいない。なぜなら、そのような哀しげなくたびれた眼で私を見た母は、ほとんど現実の記憶にはないからだ。それがどうして生れたのか、今では、わかっている。そのイメージは、母が昔、持っていた「哀しみの聖母」像の顔を重ね合わせているのだ。70)

엔도는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성모상을 병상에서 곧잘 바라보곤 하였는데 그 때마다 그 얼굴은 왠지 슬픈듯하였고 물끄러미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금이 가고 코도 없어져 버린 그 얼굴에는 단지 슬픔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어

---

70) 앞의 글, p.51

머니가 남기신 성모상과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어느새 동일시한 것 같으며 때로는 그 ‘슬픔의 성모상’의 얼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까지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엔도의 모성상에 대하여 히로이시 렌지(広石廉二)는 엔도가 가톨릭 신앙을 두텁게 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며 엔도에게 어머니는 실제의 모성상을 뛰어 넘어서 상징적인 존재로 이미 상승되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엔도의 내면에서 어머니는 성모마리아와 같이 승화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sup>71)</sup> 엔도의 가톨릭 신앙의 심화와 더불어 교회의 엄격한 그리스도상이 ‘모성적 그리스도상’으로의 전환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沈黙』의 후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은 다른 아닌 일본의 어머니의 얼굴이며 여기에는 엔도의 모성체험이 반영되었다는 에토 준(江藤 淳)의 『沈黙』서평에 대하여 엔도는 다음과 같이 수긍하고 있다.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감각, 아버지에 대한 혐오,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일본의 종교 감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종교는 모성종교이다.

それはたしかに事実だ。おれの母親に対する感覚、父親に対する嫌悪、しかしこれをプライベートにしないで、一般的な日本の宗教感覚にすると、日本における宗教は母性宗教だ。<sup>72)</sup>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각이 『沈黙』의 후미에의 그리스도상에 투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모성사모의 종교 감각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엔도의 언급을 보아도 엔도의 어머니상과 슬픔의 성모상이 중첩되어 승화되어서 『沈黙』의 모성적 그리스도상으로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1) 広石廉二, 『遠藤周作のすべて』, 朝文社, 1991, p.289

72) 遠藤周作, 『批評』5号(1966), 夏季号(武田友寿, 『「沈黙」以後—遠藤周作の世界—』, 女子パウロ会, 1985, p.27 에서 재인용)

## 2. 부정적 종교와 모성적 종교

엔도는 범신론적인 정신풍토를 갖는 일본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교’란 어떠한 것인지 끊임없이 고뇌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은 물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와 결코 가까워 질 수 없었던 이유의 하나를 「異邦人の苦惱」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교에 대해 오랫동안 거리감을 느낀 것은 유럽에서 부정적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었으며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모성적 종교의 면을 기리시탄 시대의 선교사 때부터 오늘날까지 너무 경시해 온 까닭에 우리들 일본인들과는 인연이 먼 종교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私は自分の中に長い間、距離を感じていたキリスト教が、実は父の宗教の面をヨーロッパの中で強調されすぎていたために、私にとって縁が遠く、キリスト教のもっているもう一つの母の宗教の面を切支丹時代の宣教師からこんにちに至るまで、あまりにも軽視してきたために、われわれ日本人に縁遠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ようになった。<sup>73)</sup>

그리스도교에 대한 거리감은 기리시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인의 감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적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를 강조한 나머지 모성적인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일본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의 수용의 문제점을 부정적 그리스도교만을 강조한 점에서 찾고 있다.

엔도는 종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부정적 종교’이고 또 하나는 ‘모성적 종교’이다. 부정적 종교란 신을 인간의 악을 재판하고 벌하고 분노하는 무서운 존재로 본다. 그러나 모성적 종교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됨됨이가 좋지 않은 아이에게 대하는 것처럼 신은 그러한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잘못을 저지른 인간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歎異抄』에서 말하는 선인도 구원되지만 악인도 구원받

---

73) 遠藤周作, 「異邦人の苦惱」, p.176

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용서하는 종교라는 것이다.<sup>74)</sup>

엔도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초를 다진 透谷, 独歩, 藤村, 白鳥와 같은 작가들이 젊은 시절에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대부분 신앙을 버린 점에 대하여,

일본문학에 있어서 서구의 기반을 갖는 일신론의 그리스도교를 일본문학에 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 일례로서 그들의 신이 사랑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욕욕과 사심을 끊임없이 채우고 별하는 신이었다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日本の文学にとって西欧の地盤をふまえた一神論の基督教を日本文学に消化することが如何に至難であるかを教えているのである。その一例として彼らの神が愛の神ではなく、自己の肉欲や邪心をたえず責める怒りの神であった事に注意するがよい。<sup>75)</sup>

그리스도교의 신을 사랑의 신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벌하고 질책하는 분노의 신, 즉 ‘부성적 종교’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 다자이 오사무(太宰 治)를 들고 있다. 그리고,

메이지 이후의 일본 작가가 그리스도교의 신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있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재판하는 자, 그것을 벌하는 자의 이미지를 주로 연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조화 조화와 사랑의 종교라기보다는 자기를 질책하는 종교로 보는 해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메이지 이후의 일본인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혐오 속에는 무엇보다도 이 서양종교에 대한 이질감, 거리감과 더불어 신과 그 교리에 대하여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일방적인 해석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明治以後の日本文学者が基督教の神を観念的に考える時、自分の内奥にある誰にも知られぬ秘密の裁き手、それを罰するもののイメージを主としてそこに連想してしまうようである。そして基督教さえも調和と愛の宗教としてよりは自己を責める宗教として見られることが多いのではないか。私は明治以後の日本人が基督教に漠然ともった嫌悪のなかにはまず第一にこの西洋宗教への異質感、距離感と共に神と教義への今、言ったような一方

74) 앞의 글, p.176

75) 遠藤周作, 『基督教と日本文学』, 『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卷, 新潮社, 1999, p.206

的な解釈がひそんでいるような気がしてならない。76)

메이지 이후의 일본에 있어서 ‘부성적 종교’로서의 일방적인 측면만 강조된 그리스도관이 결국 일본인을 그리스도교로부터 멀리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전술한 것처럼 엔도는 부성적인 신으로 받아들인 일본근대 작가로 다자이를 예로 들었다. “성서 한권에 의하여 일본의 문학사는 예전에 없을 정도의 선명함을 갖고 분명히 이분되어 있다(聖書一卷によって、日本の文学史は、かつてなき程の鮮明さを以て、はっきりと二分されている(『HUMAN LOST』)”고 단언한 다자이 만큼 근대문학사에서 성서를 인용한 작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자이는 비합법적인 운동에서 전향한 이래 배반자로서의 죄의식을 평생의 짐으로 여기게 된다. 파비날 중독으로 입원 중 성서체험을 통한 다자이는 성서를 읽으면서 보다 깊은 자기부정과 자학, 죄의식으로 질주해 나갔다.

『人間失格』에서 주인공 요조(葉造)는,

나는 신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사랑은 믿을 수 없고 신의 벌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단지 신이 내리는 벌을 받기 위하여 고개를 숙여서 심판대 위로 오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믿어도 천국의 존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自分は神にさへ、おびえていました。神の愛は信ぜられず、神の罰だけを信じているのでした。信仰。それは、ただ神の答を受けるために、うなだれて審判の台に向ふ事のような気がしてました。地獄は信ぜられても、天国の存在は、どうしても信ぜられなかった。

77)

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고 오직 벌하는 신만을 믿을 수 있을 뿐이었다. 심판대에 서는 죄인처럼 신의 벌을 두려워하는 다자이에게 성서란 자기부정과 자학의 심화일 따름이었다. 다자이는 나약한 자신을 벌하고 힐책하는 부성적인 신으로 수용할 뿐 죄인을 용서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모성적인 그리

76) 遠藤周作, 『父の宗教・母の宗教』, 『遠藤周作文学全集』第12卷, 新潮社, 1999, p.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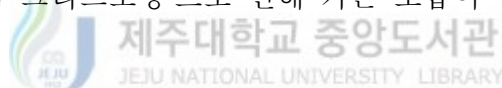
77) 太宰 治, 『人間失格』, 『太宰治全集』第9卷, 筑摩書房, 1981, p.469



스도를 찾아 낼 수 없었다. 사코 준이치로(佐古純一郎)도 다자이는 성서를 언제나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여 복음조차 율법적으로 들으려고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78)</sup> 성서를 율법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약함과 비참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경우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올바른 자가 될 수 없는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게 된다. 따라서 다자이는 결국 사랑의 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된다.

엔도는 이러한 일본근대문학의 그리스도교의 수용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데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토착화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엔도는 「異邦人の苦惱」에서 주인공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부정적 종교의 그리스도가 모성적 종교의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것이 『沈黙』의 주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sup>79)</sup> 로드리고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부정적 그리스도상’이 점차 ‘모성적 그리스도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 극명히 그려져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모기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 기 농민들도 나에게 조그마한 십자가라든가 메달, 성화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자꾸 조르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은 모두 배에다 두고 왔다고 하자 아주 슬픈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던 묵 주를 한 알 한 알 떼어내어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본 신자들이 숭배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웬지 묘한 불안감이 듭니다. 그들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もう一つ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トモギ村の連中もそうでしたがこの百姓たちも私にしきりに小さな十字架やメダイユや聖画を持っていないかとせがむことです。そうした物は船の中にみな置いてきてしまったと言うと非情に悲しそうな顔をするのです。私は彼等のために自分の持っていたロザリオの一つ一つの粒をほぐしてわけてやらね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こうしたものを日本の信徒が崇敬するのは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が、しかしなにか変な不安が起ってきます。彼等はなにかを間違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sup>80)</sup>

78) 佐古純一郎, 『太宰におけるデカダンスの倫理』, 現代文芸社, 1958. 그 외 다자이의 율법적 수용에 관해서는 寺園 司, 『太宰と聖書』, 『日語と日文学』(1964.12) 등을 참조 바란다.

79) 遠藤周作, 『異邦人の苦惱』, p.176

80) 遠藤周作, 『沈黙』, pp.215~216

서구의 일신론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에 대한 기도를 중시하기 보다는 단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화라든가 십자가등에 더 애착하는 일본 신자들을 보며 로드리고는 묘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범신론적 풍토 안에서 서구의 그리스도교가 서서히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성화에 침을 뱉고 성모마리아는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 온 매춘부라고 말해 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 후 곧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발리나노 신부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한 이노우에가 발명한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출세를 위하여 세례까지 받았던 이노우에는 일본의 가난한 농민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도 도모기 마을에 와서 농민들이 때로는 그리스도보다도 성모 마리아 쪽을 더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했던 정도였습니다.

この踏絵に唾をかけ、聖母は男たちに身を委してきた淫売だと言ってみようと命ぜられました。これは、やがてあとになってわかったのですが、ヴァリニャー師が最も危険な人物と言われたイノウエが発明した方法でした。一度はその出世のために洗礼もうけたイノウエは、日本のまずい百姓信徒たちが、なによりもまず聖母を崇拜していることを熟知していたのです。実際、私もモギに来てから、百姓たちが時には基督より聖母のほうを崇めているのを知って心配したくらいでした。81)

로드리고는 처음에는 단순히 십자가상이나 성화 등의 聖物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후미에는 밟지만 성모마리아에게 침을 뱉고 매춘부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는 일본 신자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보다 성모마리아를 더욱 숭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하게 된다.

이처럼 로드리고는 사제로서의 소명과 이상을 꿈꾸는 신앙에 확신을 갖는 인물이었기에 처음에는 성모마리아 숭배로 변해버린 그리스도교에 대해 불안해한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자신의 약자성을 인식하고 인간은 상황에 따

---

81) 앞의 글, p.224

라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약자이기에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자신들의 나약함을 용서하고 위로해 줄 존재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한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엄격 ‘부성적 신’이 아니라 약자를 사랑하는 신의 모습, 즉 어머니와도 같은 ‘모성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과 나의 주는 별개의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だがそれよりも私は聖職者たちが教会で教えている神と私の主は別なものだと知っている。82)

후미에를 밟게 된 로드리고의 의식 안에는 지금까지 자신과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부성적 그리스도’와 지금 자신이 진정 추구하는 신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후미에를 밟음으로써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성적인 그리스도를 배반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후미에를 밟지 않으면 그 대신에 일본신자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절박한 순간에 임해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여겼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차마 발을 올려놓지 못하는 로드리고에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어서 밟거라. 너의 발은 지금 아플 테지. 오늘날까지 나의 얼굴을 밟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그 때문에 나는 존재하니까.

踏むがいい。お前の足は今、痛いだらう。今日まで私の顔を踏んだ人間たちと同じように痛むだらう。だがその足の痛さだけでもう充分だ。私はお前たちのその痛さと苦しみをわかちあう。そのために私はいるのだから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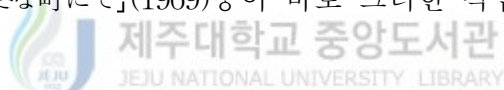
---

82) 앞의 글, p.315

83) 앞의 글, p.325

자신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존재하니 망설이지 말고 어서 자신을 밟으라고 속삭이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엔도가 추구해오던 일본적 그리스도교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범신론적 풍토에 그리스도교를 수용하려는 엔도의 결론인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배반한 자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sup>84)</sup> 말하자면 자식의 어떠한 악행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의 아픔을 이해하고 늘 묵묵히 함께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이다.

『沈黙』이 세상에 발표된 후 이러한 ‘모성적 그리스도상’이 부성원리의 질서를 지주로 하는 정통 가톨릭의 교리에 배치된다는 평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하여 엔도는 『沈黙』이후 기리시탄 및 성서연구를 중심으로 ‘모성적 그리스도상’을 신학적, 성서적인 면에서 고찰하는 힘든 작업을 했다. 『沈黙』이후에 쓰여진 에세이 「父の宗教・母の宗教」(1967)와 「母なるもの」(1969), 소설 「小さな町にて」(1969)등이 바로 그러한 작업에서 얻어진 결과였다.



엔도는 「父の宗教・母の宗教」에서 가쿠레 기리시탄의 마리아관음승배를 일본서민의 종교심리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서민의 종교심리에는 의지적인 노력의 축적보다는 절대자의 자비에 매달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그리스도교정신학에서 말하는 은총중시의 경향으로 이것은 가톨릭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프로테스탄트적이다. 그리고 자신보다 큰 존재의 자비에 매달리는 이 심정의 원형은 분명히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심리이다. 정토종이 서민과 결부된 이 심리경향은 나는 마리아관음에 기원하는 가쿠레 기리시탄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이다. 적어도 정토종은 맹렬한 수행과 노력, 그리고 순교를 명하는 부성적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일본적인 어머니의 맹목애, 일본적인 어머니의 포용력을 갖는 종교이다. 서민들이 염불만으로 부처의 자비에 매달리려고 한 것처럼 배교자인 가쿠레 기리시탄은 그리스도교 속에서 부성적인 요소를 잘라버리고 마리아의 중재를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였던 것이다.

84) 戸田義雄編, 『日本カトリシズムと文学』, 大明堂, 1982, p.119

一般に日本庶民の宗教心理には意志的な努力の積み重ねよりは絶対者の慈悲にすがろうとする傾向が強い。つまり基督教情神学でいう恩寵重視の傾向でこれはカトリック的というよりはむしろプロテスタント的である。そして自分より大きなものの慈悲にすがろうとする心情の原型はあきらかに母にたいする子の心理である。浄土宗が庶民へ結びついたこの心理傾向を、我々はマリア観音に祈ったかくれ切支丹のなかにも見い出せるのである。少なくとも浄土宗は苛烈な修業や努力や殉教を命ずる父の宗教ではない。それは日本的な母の盲目愛、日本的母の抱擁力をもつ宗教である。庶民たちが念仏だけによって仏の慈悲にすがろうとしたごとく、転び者のかくれ切支丹は基督教のなかから父的な要素を切りすてて、マリアのとりつぎを、母親の愛を求めたのである。85)

일본인의 종교심리에는 의지적인 노력의 축적보다는 절대자의 자비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어머니를 사모하는 아이의 심리와 비슷하다. 염불 중심의 정토종이나 마리아관음송배의 가쿠레 기리시탄(かくれ切支丹)<sup>86)</sup>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일본적인 어머니의 맹목애에 의지하려는 일본인의 종교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에세이 「母なるもの」에서도 가쿠레 기리시탄들이 그려놓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상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의 그림...(중략)...나는 그 서툰 솜씨로 그린 어머니의 얼굴에서 한참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중략)...옛날 선교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바다 건너 이역만리 이 나라에 왔지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느님의 가르침도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사라진 후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일본의 가쿠레들 사이에서 언제부터인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본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 어머니를 향한 사모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85) 遠藤周作, 「父の宗教・母の宗教」, pp.375~376

86) 그리스도교의 잠복 신자를 말한다. 그리스도교의 금지는, 豊臣秀吉에 의해서 처음으로 행해졌으며, 그 후에, 慶長・元和(1596~1624)경에는 江戸幕府에 의하여 대대적인 추방이 행하여졌지만, 사실상의 포교활동은 각지에서 계속 행하여졌다. 따라서 隠れキリシタン이란 이름은, 1638년의 島原의 亂 이후에 江戸幕府가 단한사람의 그리스도신자도 일본 내에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 하에 그 단속을 엄격히 한 이후의 잠복 신자를 가리킨다. 현재도 약 3만 명 정도가 西九州에 남아 있다. 이들은 각 종단에 우두머리가 있고, 세례를 중히 여기며, 많은 기도문을 라틴어로 암송・전송하고 있다. 또한 순교자의 유적에는 사당을 세워 신주를 모시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등을 농민적 연중행사와 잘 융합하여 가쿠레 기리시탄 특유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있으며, 지금도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

キリストをだいた聖母の絵…(中略)…私はその不器用な手で描かれた母親の顔からしばし、眼を離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中略)…昔、宣教師たちは父なる神の教えを持って波濤万里、この国にやって来たが、その父なる神の教えも、宣教師たちが追い払われ、教会が毀されたあと、長い歳月の間に日本のかくれたちのなかでいつか身につかぬすべのものを棄てざりもつとも日本の宗教の本質的なものである、母への思慕に変わってしまったのだ。87)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상은 영락없는 일본의 농촌아낙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서양의 아버지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일본의 그리스도교 박해 하에서 일본인의 종교심리에 맞는 마리아관음승배로 바뀌게 된 것을 보고 엔도는 일본인이 갖는 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정을 읽고 있다.

소설 「小さな町にて」(1969)에서도 ‘모성적 종교’를 회구하는 일본인의 종교 심리를 그리고 있다.

만일 종교를 크게 아버지 종교와 어머니 종교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일본의 풍토에는 어머니 종교—즉 재판하고 벌하는 종교가 아니라, 용서하는 종교밖에 크지 못한다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그리스도교의 신을 엄격한 질서의 중심이며 아버지처럼 재판하고 벌하는 무서운 초월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자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를 곧잘 부여해 온 일본인에게는 그리스도교는 단지 엄격하고 가까이하기 어려운 존재로 밖에 비추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내용으로 말문을 열었다.

もし、宗教を大きく、父の宗教と母の宗教とにわけて考えると、日本の風土には母の宗教—つまり、裁き、罰する宗教ではなく、許す宗教しか、育たない傾向がある。多くの日本人は基督教の神をきびしい秩序の中心であり、父のように裁き、罰し怒る超越者だと考えている。だから、超越者に母のイメージを好んで与えてきた日本人には、基督教は、ただ、厳格で近寄り難いものとしか見えなかつ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を私は序論にした。88)

일본인의 종교심리에 대한 지랄신부의 강연 내용이다. 일본의 풍토에는 어머니 종교, 즉 재판하고 벌하는 종교가 아니라 용서하는 종교밖에 크지 못한다는 경향이 있으며, 초월자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를 부여해 온 역사를

87) 遠藤周作, 「母なるもの」, p.55

88) 遠藤周作, 「小さな町にて」, 『遠藤周作文学全集』第8卷, 新潮社, 1999, p.68

갖고 있는 일본인에게는 그리스도교는 단지 엄격하고 가까이하기 어려운 존재로만 비추지 않았을까 하는 지랄신부의 강연을 통하여 엔도는 모성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일본인의 종교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沈黙』에서 로드리고가 배교를 통해 얻은 신앙이란 이러한 모성적인 존재를 핵으로 한 ‘모성적 그리스도상’의 발견이었다. 이는 늘지 일본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수용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沈黙』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엔도는 이러한 모성적인 그리스도의 발견을 통하여 서구의 그리스도와 일본적 풍토사이의 거리감이 가져다주는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났던 것이다.



## V. 결 론

『沈黙』은 로드리고가 서구의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쳐왔던 강하고 엄격한 ‘부성적 그리스도상’이 가톨릭 박해하의 범신론적 정신풍토를 갖는 일본에서 고통 받는 인간과 함께 하는 ‘모성적 그리스도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각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래문화의 토착화·약자의 구제·모성이란 이차적인 주제가 로드리고의 배교를 통한 ‘모성적 그리스도’의 획득이라고 하는 주제제를 향하여 결집되어 가는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드리고를 통하여 엔도가 찾은 신은 그리스도교의 긴 역사를 갖는 서양에 있어서의 심판하는 자, 분노하는 자, 즉 ‘부성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일생을 걸고 내적 고뇌를 통하여 얻은 그리스도상은, 인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존재이며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 곁에서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즉 ‘모성적 그리스도’였다. 『沈黙』에서 제시한 이 ‘모성적 그리스도상’이야말로 모든 정신세계에서 보편성을 지닌 그리스도상의 탐구를 위한 기나긴 여정 끝에 도달한 것이다.

엔도는 『沈黙』을 끝마친 후에 일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상을 구체적으로 쓸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성직자나 신학자가 아닌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작자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상을 찾는 작업은 이윽고 『死海のほとり』(1973), 『イエスの生涯』(1973), 『キリストの誕生』(1978)으로 결정되었다.

이십여 년에 걸친 기리시탄과 성서연구를 통하여 신학적, 성서적으로 고찰한 엔도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상은 『死海のほとり』에서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절름발이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뿐이며, 죽어가는 아이 곁에서 슬픔에 겨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저 무력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이다.

『イエスの生涯』에서 『死海のほとり』의 그리스도상을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는 너무 지쳐서 움푹 들어간 눈을 하고 있으며 그 눈에는 슬픔의 그림자만이 감돌고 있다. 움푹 들어간 그 눈이 미소 지을 때는 부드럽고 순수한 빛이 맺힌다. 하지만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이 세상에서는 무력했던 사람이었으며 야위고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통 받는 인간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 나약한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그 곁에 있어 주었고 노인이 고독해할 때 그의 곁에서 가만히 함께 있어 주었다. 기적 따위는 행하지 않았지만 기적보다도 더욱 더 깊은 사랑이 그 움푹 들어간 눈에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자, 자신을 배반한 자에게 원망의 말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동반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약한 인간과 늘 함께 하는 동반자적 그리스도는 『死海のほとり』와 『イエスの生涯』와 같은 작품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어느 것에도 비길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강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랑의 신이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인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알아야만 그 슬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엔도의 무력하게 비쳐지는 ‘사랑의 신’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절실함과 함께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엔도의 그리스도상은 전지전능하며 기적을 행하는 초월자적인 신과는 거리가 멀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버릴 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상이야말로 신학서가 아닌 문학의 영역 안에서 그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戦後 일본의 가톨릭 작가로서 종교적 주제의 평론과 작품을 통하여 형이상학적 세계를 끊임없이 모색한 엔도 문학은 일본의 문학풍토에 있어서 귀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텍스트】

遠藤周作, 『遠藤周作文学全集』(全15卷), 新潮社, 1999~2000

### 1. 한국문헌

#### 【단행본】

김승철, 『엔도 슈사쿠의 문학과 그리스도교』, 신지서원, 1998

박승호, 『엔도 슈사쿠 연구』, 보고사, 2002

遠藤周作(정기현 역), 『마음의 야상곡』, 홍성사, 1996

\_\_\_\_\_ (정성호 역),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창우사, 1996

\_\_\_\_\_ (안철구 역), 『날은 저물고 길은 멀다』, 성바오로출판사, 1998

\_\_\_\_\_ (김윤성 역), 『침묵』, 바오로딸, 1999

和辻哲郎(박건주 역), 『풍토와 인간』, 장승, 1993

#### 【논 문】

김경자, 『遠藤周作의 「女の一生」에 나타난 ‘사랑’』,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3.6

김희자,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沈黙에 있어서 神과 人間の 問題』, 경상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2

민세인, 『遠藤周作의 沈黙에 나타난苦痛과 救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  
문, 2000.6

이규명, 『엔도슈사쿠(遠藤周作)의 「沈黙」論-주요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충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10

최수경, 『遠藤周作의「沈黙」に関する一考察-対立の克服過程考-』, 한국외국어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2  
최정현, 『엔도슈사쿠의 어머니 되시는 하느님 이해』,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논문, 2001

## 2. 일본문헌

### 【단행본】

朝尾直弘, 『日本の歴史』第17卷, 小学館, 1975  
江藤 淳 他, 『遠藤周作 - 群像日本の作家22 - 』, 小学館, 1991  
遠藤周作 他14名, 『遠藤周作と語る』, 女子パウロ会, 1988  
\_\_\_\_\_, 『切支丹時代 - 殉教と棄教の歴史 - 』, 小学館, 1992  
\_\_\_\_\_, 『切支丹の里』, 中央公論新社, 2000  
\_\_\_\_\_, 『心のふるさと』, 文芸春秋, 2001  
遠藤周作・佐藤泰正, 『人生の同伴者』, 新潮社, 1995  
笠井秋生, 『遠藤周作論』, 双文社出版, 1987  
笠井秋生・玉置邦雄, 『作品論遠藤周作』, 双文社出版, 2000  
久保田暁一, 『日本の作家とキリスト教』, 朝文社, 1992  
佐古純一郎, 『椎名麟三と遠藤周作』, 新潮社, 1989  
笠瀨友一, 『キリスト教と文学』第二集, 笠間書院, 1975  
武田友寿, 『遠藤周作の文学』, 聖文舎, 1975  
\_\_\_\_\_, 『「沈黙」以後 - 遠藤周作世界 - 』, 女子パウロ会, 1985  
戸田義雄編, 『日本カトリシズムと文学』, 大明堂, 1982  
広石廉二, 『遠藤周作のすべて』, 朝文社, 1991

### 【논문】

池内輝雄, 「『沈黙』の方法-『深い河』への行程」, 『国文学』38卷10号, 学燈社,  
1993. 9  
遠藤周作・三好行雄, 「文学-弱者の論理」, 『国文学』18卷2号, 学燈社, 1973.2

- 佐古純一郎,「遠藤周作とカトリシズム」,『解釈と鑑賞』40巻7号,至文堂,1975.6
- 佐藤泰正,「母のイメージ」,『国文学』18巻2号,学燈社,1973.2
- \_\_\_\_\_,「遠藤周作における同伴者イエス」,『解釈と鑑賞』40巻7号,至文堂,  
1975.6
- \_\_\_\_\_,「遠藤文学における宗教的土壌としての日本」,『解釈と鑑賞』51巻10号,  
至文堂,1986.10
- 高尾利数,「イエス・キリスト教・カトリシズム」,『解釈と鑑賞』51巻10号,至文堂,1986.10
- 高堂 要,「遠藤周作における弱者の論理」,『解釈と鑑賞』40巻7号,至文堂,1975.6
- \_\_\_\_\_,「海外における遠藤文学評価-普遍的で個別的」,『国文学』38巻10号,学  
燈社,1993.9
- 高野斗志美,「遠藤文学におけるイエス像」,『解釈と鑑賞』51巻10号,至文堂,1986.10
- 高橋英夫,「遠藤文学における弱者と母」,『解釈と鑑賞』51巻10号,至文堂,1986.10
- \_\_\_\_\_,「神とシンクレティズム-『沈黙』について」,『国文学』38巻10号,学燈社,  
1993.9
- 高山鉄男,「モーリヤックと遠藤周作」,『国文学』38巻10号,学燈社,1993.9
- 武田友寿,「超越性の契機」,『国文学』18巻2号,学燈社,1973.2
- \_\_\_\_\_,「遠藤周作論-文学原像としての『聖書』-」,『国文学』53巻10号,学燈社,  
1988.10
- 柘植光彦,「イエス像-〈遠藤神学〉の円環が閉じる時」,『国文学』38巻10号,学燈  
社,1993.9
- 鶴田欣也,「『沈黙』の評価-海外における遠藤周作」,『解釈と鑑賞』51巻10号,至文  
堂,1986.10
- 遠丸立,「遠藤周作における罪と悪」,『解釈と鑑賞』40巻7号,至文堂,1975.6
- 松原新一,「〈悪〉の問題」,『国文学』18巻2号,学燈社,1973.2
- 宮内 豊,「『沈黙』論」,『解釈と鑑賞』51巻10号,至文堂,1986.10
- 宮坂 覚,「主題(テーマ)の把握-遠藤周作『沈黙』」,『国文学』38巻10号,学燈社,  
1989.7
- 村松 剛,「遠藤周作世界」,『解釈と鑑賞』40巻7号,至文堂,1975.6

フランシス・マン, 「東洋と西洋」, 『国文学』18卷2号, 学燈社, 1973.2

### 3. 기타문헌

『공동번역 성서 가톨릭용』, 대한성서공회, 1997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위원회, 『200년 신약성서 주해』, 분도출판사, 2002

武石彰夫・菅沼晃編, 『仏教文学辞典』, 東京堂出版, 1976

下中邦彦編, 『哲学事典』, 平凡社, 1985

곽복록·외편, 『世界文学大事典』, 문원각, 1975

小田切進編, 『日本近代文学大事典6』, 講談社, 1978

下中邦彦編, 『世界大百科事典24』, 平凡社, 1972

백과사전부편, 『東亜世界大百科事典32』, 동아출판사, 1992



«Abstract»

**Endo Shusaku's 『Silence』**

**-a study focused on maternal christianity in Shusaku's work-**

**Ko, Kyong- Soon**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 Eun-Sook**

Endo Shusaku is postwar Japanese novelist who seek endless metaphysical world through criticism and works on religious subject. A Catholic writer was preoccupied with the existence of matter and pointed out his principal on Japanese, Christianity, monotheism, pantheism, and God in his initial criticism. He deepened his principle through a series of his works 『White Man』(1955), 『Yellow Man』(1955), 『The Sea and Poison』(1957) and when 『Silence』(1966) was published, it was in his prime.

He was baptized from his mother when he was young. However, he came to recognize baptism as unsuitable while studying in France and choose japanizing his religion as his literature theme. Adapting Western Christianity into Japan, where the climate of pantheism is commonplace, was his starting point as a Japanese Christian writer. And this concept can be found in the work 『Silence』, which was written after his long struggle against illness over the two and a half years. In this sense, 『Silence』 is a extended world of his literature since his work 『White Man』 and criticism. It is so revolutionary in terms of subject, theme, and the basic tone that act as a watershed in his world of literature.

This study is focused on defining the main theme of 『Silence』 by examining th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process of change from paternal Christianity to maternal Christianity so that it can be accepted properly in the pantheism-bound Japan.

Rodrigues, the main character of this novel, changed his mind and moved toward maternal Christianity with humans suffered for weakness in 『Silence』. He had been taught and learned strong and strict paternal Christianity in the western church, but came to change his idea to maternal Christianity in Japan where Catholic is persecuted. In this process, stereotypical human Kichijiro frequently seduces him. He act as Judas in this novel. Because of his inborn weak nature, Kichijiro see Rodrigues as disgusting and contemptible. He compared his repeated lifestyle of renegation and restoration of faith with Rodrigues's consistent lifestyle. It can be said that accepting Kichijiro into Rodrigues's mind is his given task. When he trample the portrait of Christ(Fumie) to demonstrate his renegade for his followers, Rodrigues finally get to understand what Jesus told Judas. Having heard inner voice of Christ saying "Trample it, I forgive you ", thought Jesus should be tender like mother and accept any trespass of a weak man, Judas, with forgiveness and love. Here, salvation of the weak defined as Judas(Kichijiro) is being made. The weak part of human that Endo presented in "Silence" became a motive for developing the concept of Christianity from hardly accepted one in Japan to comprehensible maternal one.

This consciousness change of Rodrigues is well-portrayed through Christ's changing face in his inner-self. Rodrigues pictured Christ's face in his mind for several times and its face altered as psychological change occurred in Rodrigues's inside. As his faith shaken and frustrated, Christ's face undergo gradual change from paternal appearance to tender mother figure. The author depict Rodrigues's inner reflection through the change of Christian's face, which symbolize Christian's altered paternal face. It showed his strict religious faith learning from former church changed when Rodrigue renegade it. It can be seen that he come to understand Japanese' mental climate after experiencing conflicts in Japan, finding suitable God's appearance in Japan.

Therefore, the god that Endo was achieving through Rodrigues was "all-is-forgiven, lovely, partner-like Christ", not like "judge, rage and paternal Christ". The maternal Christ presented in 『Silence』 was ended its long journey to explore Christ's ideal which is universal in all mental field.

Since 『Silence』, Endo's long march to find mostly accepted Christianity to Japanese went on, and was determined by a series of his works 『Upon the Dead Sea』(1973), 『A Biography of Jesus』(1973), 『Birth of Christ』(1978), 『Deep River』(1993)